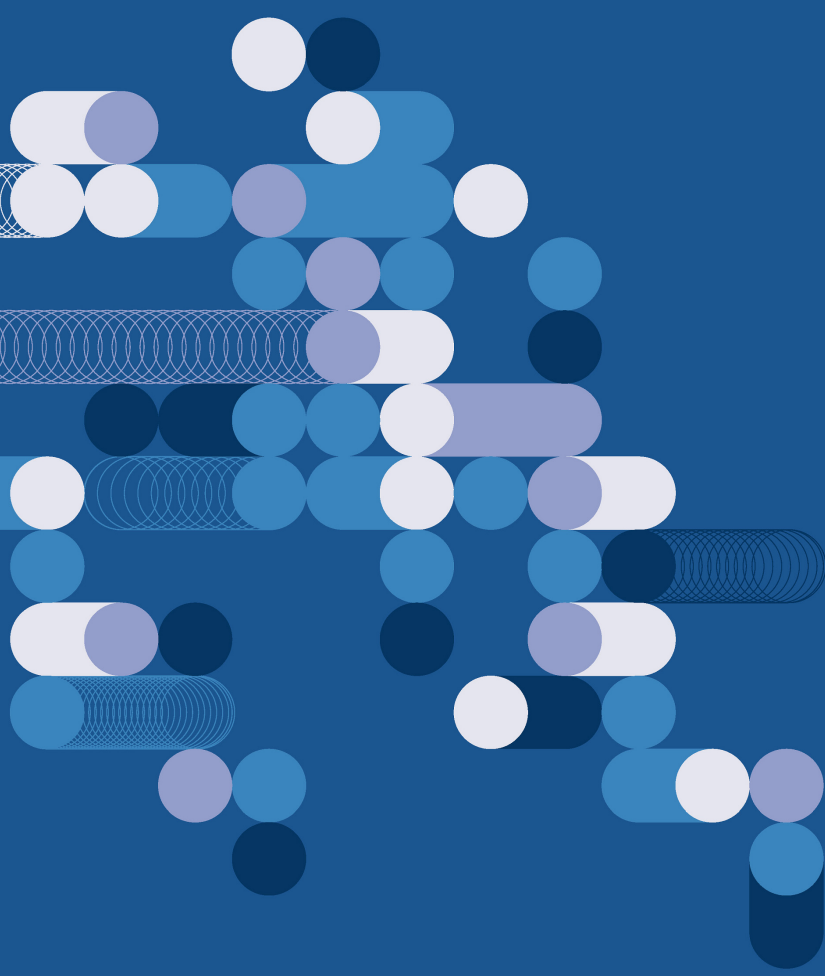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23. 1

이규복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이규복

목차

요약

I. 연구의 배경	1
II. 코로나 사태 전후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	4
1. 분석 기간 설정	4
2. 실물경기 및 가계 소득 수준의 변화	5
3. 금융시장의 변화	6
III. 코로나 사태 전후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10
1.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10
2.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13
IV. 코로나 전후 가계 자산결정요인 분석	40
V. 결론 및 시사점	55
〈참고자료 1〉 순자산5분위 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분석결과	59
〈참고자료 2〉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 사업 개요	65
〈참고자료 3〉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 해외사례	74
참고문헌	80

표목차

〈표 II-1〉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세부내역 추이	6
〈표 III-1〉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 및 실물자산 보유액 추이	14
〈표 III-2〉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세부내역별 보유액 추이	15
〈표 III-3〉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세부내역별 보유액 추이	16
〈표 III-4〉 최근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액 추이	16
〈표 III-5〉 최근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액 추이	28
〈표 IV-1〉 요약 통계량	43
〈표 IV-2〉 저축 결정요인 분석	45
〈표 IV-3〉 보험 결정요인 분석	47
〈표 IV-4〉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결정요인 분석	49
〈표 IV-5〉 전월세 보증금 결정요인 분석	51
〈표 IV-6〉 거주 주택 결정요인 분석	53
〈표 IV-7〉 거주 주택외 부동산 결정요인 분석	54
〈표 A1-1〉 저축 결정요인 분석	59
〈표 A1-2〉 보험 결정요인 분석	60
〈표 A1-3〉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결정요인 분석	61
〈표 A1-4〉 전월세 보증금 결정요인 분석	62
〈표 A1-5〉 거주 주택 결정요인 분석	63
〈표 A1-6〉 거주 주택외 부동산 결정요인 분석	64
〈표 A2-1〉 저소득층 지원 5개 통장사업 세부내용 (21년 통장사업 통합전)	67
〈표 A2-2〉 저소득층 지원 21년 통합된 통장사업	68
〈표 A2-3〉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상품 운용현황	72

그림목차

〈그림 Ⅱ-1〉 단기금리 추이	7
〈그림 Ⅱ-2〉 예금은행 예금금리 추이	7
〈그림 Ⅱ-3〉 주가지수 변동 추이	8
〈그림 Ⅱ-4〉 전국 주택가격 및 지가지수 상승률	9
〈그림 Ⅲ-1〉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1
〈그림 Ⅲ-2〉 금융자산 종류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2
〈그림 Ⅲ-3〉 실물자산 종류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3
〈그림 Ⅲ-4〉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자산 추이	17
〈그림 Ⅲ-5〉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실물자산 추이	18
〈그림 Ⅲ-6〉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금융자산 추이	19
〈그림 Ⅲ-7〉 최근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20
〈그림 Ⅲ-8〉 최근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23
〈그림 Ⅲ-9〉 최근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26
〈그림 Ⅲ-10〉 최근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27
〈그림 Ⅲ-11〉 최근 연령별 가구당 자산 추이	29
〈그림 Ⅲ-12〉 최근 연령별 가구당 실물자산 추이	30
〈그림 Ⅲ-13〉 최근 연령별 가구당 금융자산 추이	30
〈그림 Ⅲ-14〉 최근 연령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32

<그림 Ⅲ-15> 최근 연령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35

<그림 Ⅲ-16> 최근 연령별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 38

<그림 Ⅲ-17> 최근 연령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39

요 약

I. 연구의 배경

-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주체들의 생활이 제약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도 변화
 -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보유한 특성들과 경제적,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자신들의 자산보유 규모 및 보유자산의 종류를 결정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산보유 규모 및 자산의 종류를 결정함을 강조하였고 사회사업학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산형성 유인을 설명
 -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개인들의 소득여건, 자산에 대한 리스크 크기와 기대수익률 등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며 가계의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에 영향

-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산규모나 자산의 종류가 변화되는 정도나 모습이 경제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가계의 특성에 따라 특정 자산에 대한 보유성향이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 규모의 양극화 현상,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 등으로 연결 가능

- 사회사업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따르면 자산형성이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 및 구조가 소득분위별, 연령별 등 가계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자산형성지원 정책이 고려할 방향들을 논의

II. 코로나 사태 전후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

1. 분석 기간 설정

- ▣ 코로나 사태 시작 이전 시기는 2019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시기는 2021년으로 설정하여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음을 감안하여 2019년을 이전 시기로 설정
 - 사실 현재도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긴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화되고 코로나 인해 제시된 거시·통화·금융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던 2021년을 이후 시기로 설정하여 비교

2. 실물경기 및 가계 소득 수준의 변화

- ▣ 실물경제 측면에서 가계의 자산보유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인 소득변수를 코로나 사태 발생 직전과 직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면 우선 국민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19년 1,5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는 0.08%로 거의 증가하지 못한 이후 정책적 지원 등을 기반으로 2021년 6.7%로 소득 증가세가 확대

- 거시 실물경제의 경우에는 2019년 2.2% 증가한 실질경제성장률이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0.7%로 급락하였었고 2021년에는 4.1%로 반등
-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대상인 가계의 본원소득을 의미하는 피용자보수의 경우에도 2019년 913조 원이던 피용자보수가 2020년 2.4%, 2021년 6.1% 증가하여 유사한 추세 기록

▣ 금융시장 측면에서 분석 기간의 가격들을 비교하여 보면 금리는 하락하는 가운데 위험자산시장인 주식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물자산의 가격 추이를 보면 우선 주택가격의 경우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연평균 상승률이 -0.22%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시행된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기반으로 2020년 연평균 상승률이 2.84%로 높아졌고, 2021년 연평균 상승률은 8.48%까지 확대
- 한편 전체적인 지가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비해 가격 상승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지가상승률의 경우 연4% 전후에서 등락

Ⅲ. 코로나 사태 전후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1.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 한국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1.12경 원이던 자산규모가 2021년에는 1.38경 원으로 1.24배 증가

-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이나 2021년이 모두 63.4%를 기록하여 비중의 차이가 변화하진 않은 것으로 평가

▣ 국민대차대조표상의 금융자산 세부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1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준비금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는 확대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1년 예금금리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평가

▣ 실물자산 세부 내역 추이를 보면 2019년에 비해 2021년 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주거 및 비주거용 관련 토지 외 토지자산, 비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의 비중은 감소

- 상기한 가격지수에서 주택가격이 지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평가

2.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하여 가계의 특성에 따라 미시적으로 자산규모가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

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구당 자산 추이

▣ 가계 특성별로 보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평균 금융 및 실물자산 보유액을 보면 전체 자산의 경우 2019년 가구당 평균 4.3억 원에서 2021년 5.0억 원으로 증가

-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1년 전월세보증금은 주택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증가
 - 금리인하의 여파로 저축과 보험*은 감소한 반면 자산가격 상승의 여파로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의 증가로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의 비중도 증가
 - *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자산 부문의 보험은 저축성 보험,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을 의미

-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주 주택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더욱 크게 확대
 - 반면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비중은 동 기간에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택가격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지가 변화는 완만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분위별 가구당 자산 추이

- 자산보유 규모를 살펴보기 이전에 소득분위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소득 5분위보다는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보다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2019년 11.19배에서 2021년 9.68배로 축소

-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자산보유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21년 기준 5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보다 6.7배 많은 수치로 2019년 7.2배에서 다소 축소
 - 5분위와 1분위간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 격차가 실물자산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두 분위간 격차는 2019보다 축소

▣ 소득분위별로 세부내역별 가구당 금융자산 보유상황을 살펴보면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금융자산의 경우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2019년 31.9배에서 2021년 17.7배까지 급격히 축소

- 저축과 보험의 경우에도 동기간 동안 두 분위간 격차가 6.7배에서 6.5배, 12.8배에서 10.9배 정도로 축소된 반면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4.3배에서 4.5배로 다소 확대
- 세부내역별 금융자산 보유상황을 자산보유 가구 비중과 자산보유 가구당 보유액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저축의 경우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이 모두 축소되었는데 보유 가구 비중의 경우 5분위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짐.
- 보험의 경우 보유 가구 비중은 전소득분위에서 감소한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경우 분위별로 보유 가구 비중과 자산보유 가구당 보유액의 변화가 차별화
-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전소득분위에서 보유 비중도 소폭 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 보유액도 증가

▣ 실물자산을 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며 5분위와 1분위의 격차도 2019년과 2021년 모두 5.1~5.2배 정도를 유지

-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1, 2분위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 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게 나타나며 5분위와 1분위 격차가 2019년 9.6배에서 8.8배 정도로 축소
-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 보유 비중이 1분위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한 반면, 5분위는 소폭 감소하였고, 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모든 분위에서 크게

-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소득 보유자의 보유액이 더욱 크게 증가
-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4~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유 가구 비중은 축소
 - * 1~3분위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유 가구 비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만이 증가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연령별 가구당 자산 추이

- ▣ 연령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60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미만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히 30대 미만의 경우 2020년에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대였음에 유의할 필요
 - 소득이 가장 적은 30세 미만과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의 격차를 보면 2019년 1.87배에서 2021년 1.94배로 확대
- ▣ 연령별로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 60대 순인데, 50대와 30대 미만과의 격차를 보면 2019년 4.5배에서 2021년 4.7배로 다소 확대
 -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구분하여 보면 우선 가구당 평균 실물자산 보유액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40대의 평균 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
 - 한편 금융자산의 경우 30대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금융자산의 주요 세부 내역별로 가구당 평균 보유액을 비교하여 보면 저축과 보험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저축과 보험 모두 30대 미만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액의 추이를 보면 2019년보다 2021년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는데 40대 미만과 40세 이상의 증가율이 상당히 차별화
 - * 60대와 50대, 40대는 각각 24%와 19%,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30대는 89% 증가하였고 30세 미만은 2.1배가 증가
 - * 젊은 층의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1년 30대 가구당 보유액의 경우 60대 가구당 보유액을 초과
-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30대 미만과 40대가 그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
-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축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평균 보유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저축 보유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급격히 하락하였음에 유의할 필요
- 보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30대와 30대 미만의 경우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지만 보유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
- 반면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1년 보유 가구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서 확대되었는데 특히 30대와 30대 미만 가구에서 보유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 30대와 30대 미만 가구의 보유가구당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젊은 층의 리스크 금융자산 확대가 보유액 증가보다는 보유 가구 비중 증가에 기인한 현상으로 평가
 - * 한편 40대나 50대의 경우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상당폭 증가하였는데 보유가구당 보유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보유 가구 비중이나 보유 가구당 보유금액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30대 미만과 30대의

보유 비중이 가장 증가

- 실물자산을 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30대 미만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다른 연령대는 유사한 증가세 유지되면서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40대와 30대 미만의 격차를 보면 2019년에는 7.7배 정도이던 격차가 2021년에는 10.3배까지 확대
 -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액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50대와 30대 미만의 격차를 보면 2019년에는 13.9배 정도이던 격차가 2021년에는 8.3배로 축소

- 실물자산을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 우선 30세 미만의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
 -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도 30대 미만의 추세가 차별화되게 나타났는데 보유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

IV. 코로나 전후 가계 자산결정요인 분석

- 본 장에서는 가계의 특정 자산보유에 대한 결정요인이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
 - Arrondel, L. et al(2016)의 실증분석 모형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개별 가계들의 각 세부 자산별 보유 여부(extensive margin)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빗모형과 자산별

보유 규모(intensive margin)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모형을 이용

- 분석대상의 경우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비교
- 분석대상 변수로는 금융자산의 경우 저축, 보험,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을,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외 부동산 변수를 선정
- 결정요인을 위한 독립변수들의 경우에는 Arrondel et al(2016)에서 이용한 변수인 가구원 수, 결혼상태, 성별, 거주 위치로 수도권 여부, 교육 정도, 종사상 지위, 그리고 연령, 소득분위, 은퇴 여부 등을 이용

▣ 저축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1년의 계수의 크기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 2021년 의미있게 변화

- 프로빗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 변수들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음을 확인
- 그래프 분석에서도 저축 보유 가구 비중이 30대 미만에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과
- 다만 토빗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별 계수의 경우 50대 계수를 제외하면 2019년에 비해 2021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유 가구의 비중이 크게 변화한 것에 비하면 저축보유액의 변화폭은 크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소득수

준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이 계속 높아지긴 하지만, 그 성향정도가 2019년보다 2021년에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아지는데,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의 격차가 2019년보다 2021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30대 미만의 보유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일치하는 결과
- 한편 토빗 분석결과에서는 2019년과 2021년 소득분위별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는 소득 1분위에서는 보험 보유 가구의 가구당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소득 5분위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일치하는 결과로 평가
-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프로빗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2019년보다 2021년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 보유액이 커지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위험자산 보유성향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리스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그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질 정도로 계수가 크게 변화

-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젊은 층의 리스크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토빗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아지는데 2019년과 2021년 계수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진 않는 것으로 평가

- 실물자산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기한 전월세보증금 분석과 역의 관계인데 대체로 2019년과 2021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소득 5분위의 경우 유의하게 계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5분위의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부분과 연관된 결과일 것으로 평가
 - 토빗 분석결과에서는 소득 5분위의 계수가 2019년에 비해 2021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이는 거주 주택의 보유성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 비해 2021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 즉,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다소 다른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비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그룹이 있었으나 다른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였다고 평가

V.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보유현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봄.
 - 특히 소득, 연령 등의 특성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자산 세부 내역별로 전후 변화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특성에 따라 자산보유의 양극화가 심화 또는 축소되었는지,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가계의 그룹에서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는지 등을 분석

- 분석결과 가장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첫째, 연령대 중에서 젊은 층의 자산보유 성향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임.
 - 젊은 층의 경우 저축이나 보험의 보유성향은 다른 연령대와 차별화될 정도로 축소된 반면 대신 리스크 금융자산의 보유성향은 다른 연령대와 차별화될 정도로 확대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나 참고자료에서 제시하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최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평가해 볼 필요
 - 우리나라는 면밀한 분석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슈화되면서 복지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비하여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 차원에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등을 신설 또는 계획한 바 있음.
 - 그런데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코로나 발생 전후를 비교하였는데, 이 기간은 이미 복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상당히 강화한 기간임에 유의할 필요
 - 즉, 청년들에게 상당히 높은 매칭 비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하게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저축이나 보험의 보유성향은 크게 축소되고, 리스크 금융자산의 보유성향은 크게 확대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
 - 그러므로 매칭 비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층의 장기저축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특히 소득변수 등을 모두 통제하고도 젊은 층의 자산보유 성향이 유독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향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개선하는 데 고려해 볼 필요
 - 향후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첫 번째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상당한 매칭비율을 제공하였음에도 저축보유비중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금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하락하게 되는 방식보

다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매칭 비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이와 동시에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현재 금융 차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교육이나 상담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복지 차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연계는 되어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복지와 금융의 협업을 통해 전체적인 관리는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되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금융회사나 유관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여 보다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 한편 소득분위별로 볼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의 보험 가입 성향의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 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는 저축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더욱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를 감안하면 청년층에서만 보다 장기적인 자산형성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 자산형성사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가계의 자산관점에서만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자산과 함께 부채를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

- 사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도 향후 진행될 필요
- 정부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형성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을 중심으로 한 채무 관련 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두 사업의 적절성을 찾아줄 수 있는 노력도 진행될 필요

I. 연구의 배경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제주체들의 생활이 제약되면서 실물 경제 및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우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약은 다각도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생산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산공급의 차질을 유발하였고 물류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실물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시장도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 한편 부실자산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실물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실물경제의 둔화를 완화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가격변화를 크게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보유한 특성들과 경제적, 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자신들의 자산보유 규모 및 보유자산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산보유 규모 및 자산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거시경제의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저축률은 저축에 따른 이자율과 경제주체들의 특성변수인 할인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거시경제에 불확실성을 포함시키면 노동소득에 대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예비적 저축을 하게 된다. 나아가 거시경제모형에 주택보유 및 주택임대라는 요소를 포함시키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에 변화를 받게 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초기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경제주체는 주택을 보유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금융자산 내에서 투자자산 종류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결정 과정은 자산별로 리스크에 따른 수익률의 차이와 자산종류별 상관관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노동소득의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에게 소득 규모의 변동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데 일정 부분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사업학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제도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들의 자산형성 유인을 설명하고 있다. 즉 자산은 단순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자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세대를 거쳐 경제적인 상태를 물려줄 수 있는 계층이동의 수단으로 볼 것이다. 특히 계층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자산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면서도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또한 개인의 역량이나 사회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산을 축적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고, 형성된 자산을 이용해서는 자신들의 인적자본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들의 사고와 역량이 개선되면 이는 결국 전체적인 사회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거리두기, 경기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개인들의 소득여건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리스크 크기와 기대수익률 등에 다각도로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개인들의 계층이동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주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가계의 자산보유 규모 및 자산의 종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과 완화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가계의 자산규모나 자산의 종류가 상당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실물 및 금융환경의 변화 정도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는 경제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산규모나 자산의 종류가 변화되는 정도나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경제주체들의 특성에 따라 자산보유액이나 자산종류별 보유액의 변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상기한 사회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다르게 형성된 자산은 계층이동에 영향을 주게 되거나 경제주체들

의 미래역량 발전, 나아가 사회경제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과 이후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규모나 자산의 종류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적인 가계의 자산보유 규모나 자산종류별 상황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가계들의 특성에 따라 특정 특성을 가진 가계의 그룹에서 자산종류별로 자산을 보유하는 성향이 차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및 이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가계의 자산보유 규모나 자산의 종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계의 특성에 따라 특정 자산에 대한 보유성향이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규모의 양극화 현상,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사업적인 관점에 따르면 자산형성이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책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특성을 가진 가구들의 자산보유성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가계들의 자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III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 하에서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 변화와 자산종류별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소득분위별, 연령별 등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자산규모의 변화나 자산종류별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가계들의 특성에 따라 자산종류별로 보유성향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IV장의 분석결과 및 해외 자산형성사례 등을 바탕으로 V장에서는 향후 국내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고려할 방향들을 논의하였다.

Ⅱ. 코로나 사태 전후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 변화

1. 분석 기간 설정

본 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실물 및 금융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를 비교하려면 코로나 사태 시작 이전과 이후라는 분석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확인되어 2020년 상반기에 각 국가에 본격적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2019년을 코로나 사태 시작 이전 시기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코로나 시작 이후는 사실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대상을 선정하기가 좀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거시·통화·금융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계자산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작과 함께 나타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이후 변화된 가계자산의 현황을 코로나 이전 가계자산 현황과 비교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화되고 제시된 거시·통화·금융정책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던 2021년을 코로나 시작 이후의 분석대상 시점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실물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2019년과 2020년 가계자산 현황이 해당연도뿐만 아니라 전년도 상황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뿐만 아니라 전년도인 2018년과 2020년도 함께 살펴보았다.

2. 실물경기 및 가계 소득 수준의 변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과 직후의 실물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실물경제의 경우 2018년 2.9%, 2019년 2.2% 증가한 실질경제성장률이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0.7%로 급락하였었고 2021년에는 4.1%로 반등하였다.

이처럼 전체적인 거시경제가 급등락하는 가운데 국민처분가능소득 역시 실물경제 성장세와 유사한 증감세를 기록하였다. 2019년 국민처분가능소득 규모는 1,5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는데 2020년에는 증가세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08%로 거의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다양한 정책적 효과 등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6.7%까지 확대되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본 보고서의 주된 분석대상인 가계의 본원소득을 의미하는 피용자보수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2019년 913조 원이던 피용자보수가 2020년 2.4%, 2021년 6.1% 증가하여 2021년 기준 992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다소 증가폭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계정상으로는 민간소비지출을 가계와 기업을 구분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용자보수와 가계의 소비지출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다. 다만 전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통해 대략적인 추세를 유추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인데 민간소비지출은 2020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21년에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피용자보수 추세를 비교하여 보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가계가 저축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2021년에는 2019년보다는 저축의 증가세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표 II-1〉 국민처분가능소득 및 세부내역 추이

(단위 : 십억원)

	2018	2019	2020	2021
국민처분가능소득	1,539,485.3	1,553,455.0	1,554,750.8	1,658,266.8
비용자보수	868,145.1	913,408.8	935,575.1	992,666.8
국외순수취비용자보수	-1,280.3	-995.9	-780.5	-762.2
영업잉여	489,156.1	444,916.3	413,217.6	435,129.7
국외순수취기업 및 재산소득	8,925.2	17,605.7	17,724.3	23,825.5
생산 및 수입세	194,182.7	196,973.8	207,468.4	227,205.7
(공제)보조금	12,431.3	12,557.5	15,297.3	15,835.9
국외순수취경상이전	-7,212.2	-5,896.2	-3,156.7	-3,962.8
국민처분가능소득	1,539,485.3	1,553,455.0	1,554,750.8	1,658,266.8
민간최종소비지출	911,576.1	935,933.8	900,320.9	955,779.6
정부최종소비지출	304,692.7	328,663.2	350,094.3	376,218.8
순저축	323,216.5	288,858.1	304,335.5	326,268.4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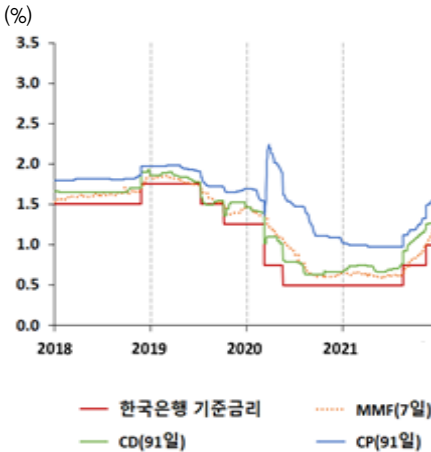
3. 금융시장의 변화

실물경제 측면에서 가계의 자산보유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소득이라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우선 금리의 추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 추이를 보면 금리 추이의 가장 근거가 되는 기준금리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에 2018년 11월 1.75%까지 상승한 이후 유지되다가 2019년 7월, 2019년 10월 각각 25bp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면 2020년 5월 0.5%까지 낮아졌다. 이후 실물경제 성장세가 일정 수준 이상 회복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가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되어 8월과 11월에 25bp씩 인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금리들은 기준금리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단기

금리인 CD 금리의 경우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연평균 1.69%였던 반면 코로나 이후 분석대상 기간인 2021년에는 0.85%로 이전 기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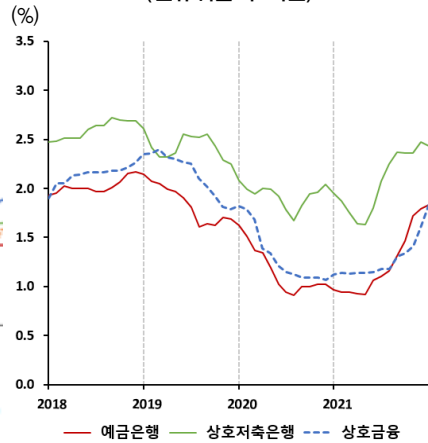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은 예금금리 역시 단기시장금리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은행 1년 예금금리의 경우 2019년 1.85%에서 2020년 1.16%까지 낮아졌으며 2020년에는 1.2%를 기록하였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1년 예금금리는 2019년 2.43%, 2020년 1.93%, 그리고 2021년에는 2.04%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금리 수준만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축소할 유인이 있던 시기이다. 다만 코로나와 함께 경기가 급락하고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저축이 증가하면서 금리에 의한 저축 축소 경향을 상당폭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하여 예금에 의한 저축유인은 축소되었지만 하기하는 바와 같이 자산시장의 가격이 증가하면서 자산시장을 통한 저축유인은 증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1〉 단기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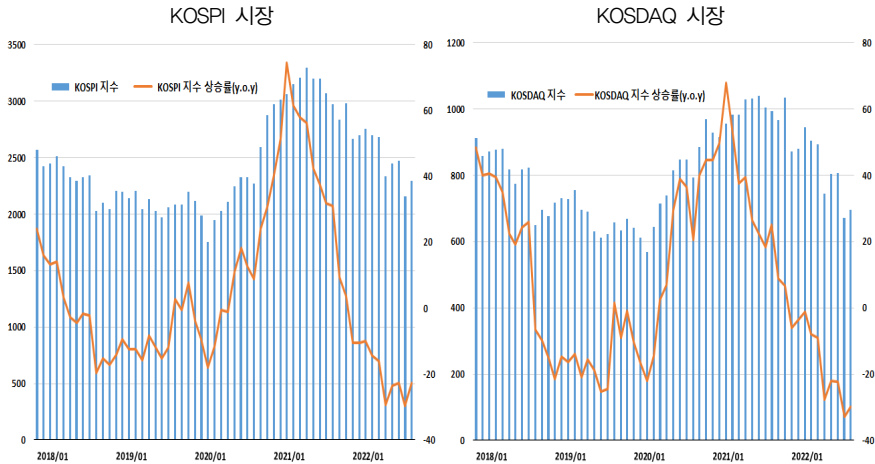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II-2〉 예금은행 예금금리 추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표적인 위험자산시장인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연평균 2106.05였던 KOSPI 지수가 2020년 연평균 2220.07을 기록하고 2021년에는 연평균 3111.31을 기록하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2019년 지수 평균보다 2021년 지수평균이 1.48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SDAQ지수의 경우에도 2020년 연평균 753.05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연평균 996.02를 기록하였다. 위험자산의 경우 이론상 예금 등의 안전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을수록,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자산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안전자산의 수익률은 낮아진 반면 주식의 수익률이나 변동성은 확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 규모의 확대를 유인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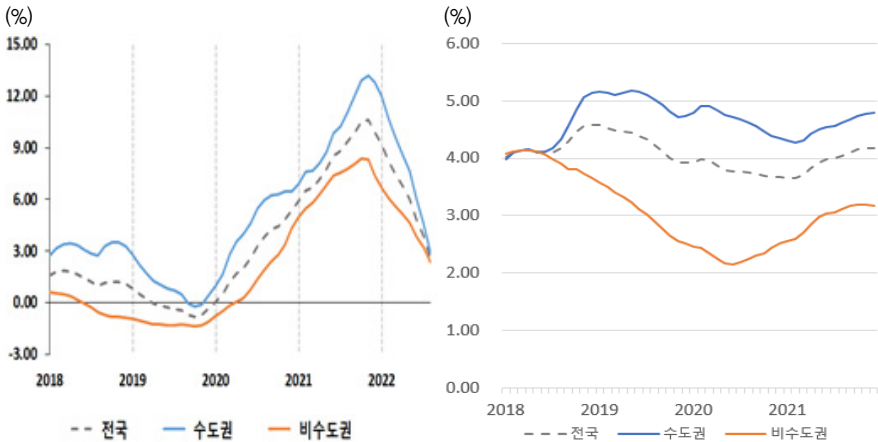
〈그림 II-3〉 주가지수 변동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편 실물자산의 가격 추이를 보면 우선 주택가격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긴 하였는데 2019년에는 상승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연평균 상승률이 -0.2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66%p 낮아진 수치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2020년 연평균 상승률은 2.84%로 높아졌고, 2021년 연평균 상승률은 8.48%까지 확대되었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가계 입장에서는 높아진 수익률로 인해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또는 주택자산 규모를 증가시킬 유인이 높아졌지만 높아진 주택가격을 지불하기 위한 부담¹⁾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용에 따라 주택자산 보유 현황이 차별화되는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체적인 지가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비해 가격 상승률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지가상승률의 경우 4% 전후에서 등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전국 주택가격 및 지가지수 상승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1 이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부담과 함께 LTV, DTI, DSR 규제 등에 따라 주택구매시 가격의 일정 비율의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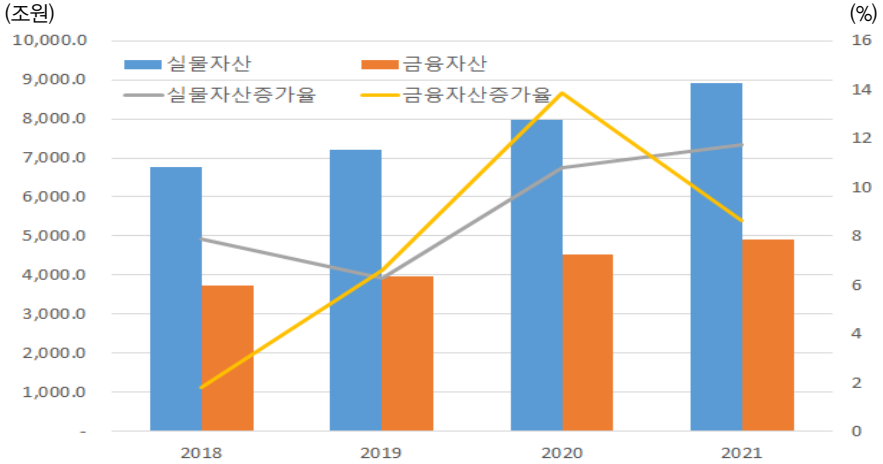
Ⅲ. 코로나 사태 전후 가계의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1. 국민대차대조표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한국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실물자산(생산설비, 토지, 건물 등), 무형의 비금융자산, 대내외 금융자산 및 부채를 모두 기록한 통계로 국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매년 말 국민경제 전체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부채) 및 비금융자산의 가액, 그리고 그 증감을 기록한 스톡(stock) 통계로, 국민경제와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 규모(또는 국부)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하면 전반적인 가계의 자산규모 추이를 파악하여 볼 수 있다.

국민대차대조표 상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1.12경 원이던 자산규모가 2021년에는 1.38경 원으로 1.24배 증가하였다. 전체 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이나 2021년이 모두 63.4%를 기록하여 비중의 차이가 변화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증가세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기한 피용자 보수 규모나 최종소비지출 등의 추이와 비교하여 보면 2020년 소득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감소하면서 저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도 소비가 증가하긴 하였지만, 상당 규모의 순저축이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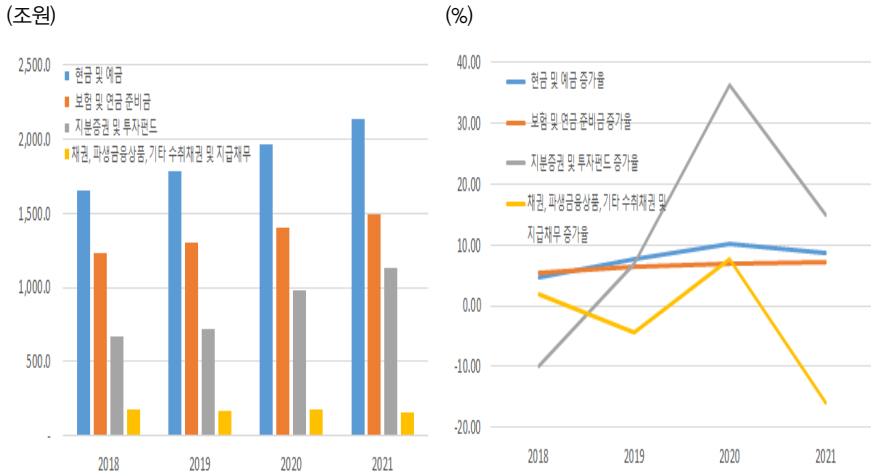
〈그림 Ⅲ-1〉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상의 금융자산은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준비금,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 채권,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으로 구분하여 규모가 공개되고 있다. 이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보험 및 연금준비금이 그다음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9년 45%에서 2021년 43%로 축소되었고, 보험 및 연금준비금 역시 2019년 33%에서 2021년 30%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분증권 및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18%에서 23%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리스크가 높은 자산 위주로 구성이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1년 예금금리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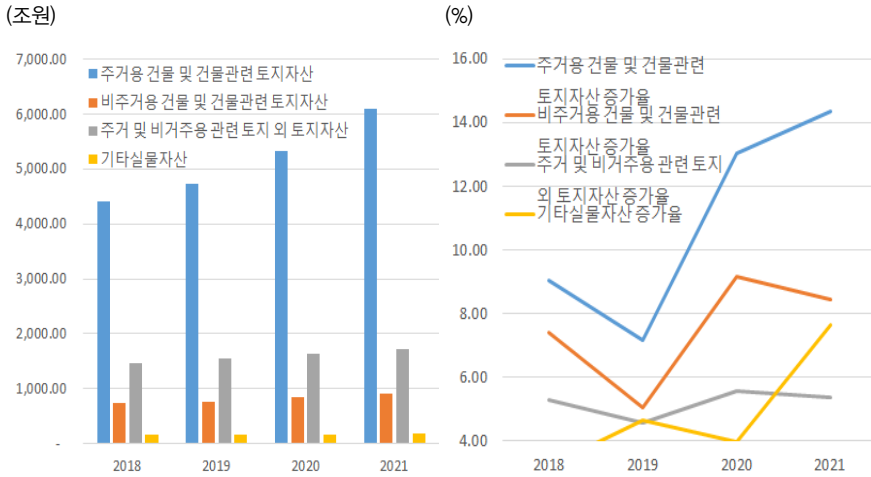
〈그림 Ⅲ-2〉 금융자산 종류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 비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 주거 및 비주거용 관련 토지 외 토지자산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용 건물 및 건물관련 토지자산의 비중이 가장 크고 주거 및 비주거용 관련 토지 외 토지자산, 비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이 그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비중의 변화를 보면 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의 비중은 2019년 66%에서 2021년 68%로 증가한 반면 주거 및 비주거용 관련 토지 외 토지자산, 비주거용 건물 및 건물 관련 토지자산의 비중은 각각 21%에서 19%, 11%에서 10%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상기한 가격지수에서 주택가격이 지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Ⅲ-3〉 실물자산 종류별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계 실물 및 금융자산 규모 변화

한국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가계의 특성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자산의 규모를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통계청 및 한국은행이 주관하여 매년 수집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서베이 자료로 전체적인 가계자산 규모 등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계의 특성에 따라 미시적으로 자산규모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가계의 특성 중 소득분위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보유자산의 규모가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자산종류별로 자산이 적은 분위와 자산이 많은 분위 간 자산보유의 양극화가 심화 또는 축소되었는지, 특정 소득분위나 특정 연령대가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구당 자산 추이

우선 가계 특성별로 보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평균 금융 및 실물자산 보유액을 보면 전체 자산의 경우 2019년 가구당 평균 4.3억 원에서 2021년 5.0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9년보다 2021년 전체 자산규모가 1.16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국민대차대조표의 증가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서베이자료라는 특성과 국민대차대조표에는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점, 조사 시점의 차이 등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2021년 기준 77%로 2019년 76%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 및 실물자산 보유액 추이

(단위 : 만원)

	2018	2019	2020	2021
자산	42,036	43,191	44,543	50,253
실물자산	31,689	32,621	34,039	38,934
금융자산	10,346	10,570	10,504	11,319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보유 현황을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전월세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저축과 보험²⁾이 그다음으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과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이 저축과 보험보다는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시작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보면 전월세보증금과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여타 금융자산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1년 28%

2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자산 부분의 보험은 저축성 보험, 만기환급형 보장성 보험을 의미한다.

로,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의 비중은 11%에서 13%로,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비중은 11%에서 12%로 각각 증가한 반면, 저축은 25%에서 21%, 보험은 24%에서 2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보증금의 증가는 주택가격상승이 전월세보증금의 증가를 유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며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의 증가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축 및 보험의 비중이 축소되고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금금리 등의 하락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증가에 따른 위험자산의 수익률 변화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2〉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세부내역별 보유액 추이

(단위 : 만원)

	2018	2019	2020	2021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1,157	1,167	1,295	1,527
저축	2,425	2,597	2,533	2,428
보험	2,610	2,533	2,462	2,392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1,002	1,118	934	1,401
전월세보증금	2,662	2,697	2,873	3,220
기타저축	490	459	408	351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한편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비중이 그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 주택의 경우 실물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019년에는 55%였지만 2021년에는 59%까지 확대되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37%였던 비중이 34%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지가 변화를 보면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Ⅲ-3〉 최근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세부내역별 보유액 추이

(단위 : 만원)

	2018	2019	2020	2021
거주 주택	16,894	17,933	18,945	22,876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12,037	12,044	12,585	13,430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450	402	432	402
기타 실물자산	2,309	2,242	2,076	2,226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분위별 가구당 자산 추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 가구당 자산보유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자산보유 규모를 살펴보기 이전에 소득분위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소득 5분위보다는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보다 크게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에는 2019년 4%, 2020년 5%, 2021년 14%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2019년 0%, 2020년 1%, 2021년 3%의 증가율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2019년 11.19배에서 2021년 9.68배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Ⅲ-4〉 최근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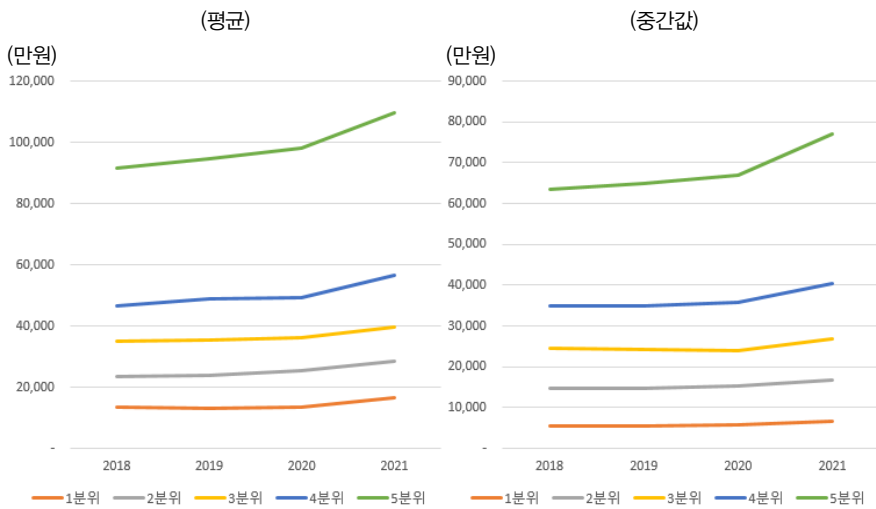
(단위 : 만원)

	2018	2019	2020	2021
전체	4,671	4,729	4,818	5,003
1분위	918	958	1,009	1,150
2분위	2,275	2,316	2,369	2,530
3분위	3,760	3,850	3,942	4,109
4분위	5,709	5,792	5,916	6,093
5분위	10,692	10,728	10,855	11,130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소득분위별로 가구당 자산보유 규모의 변화를 보면 2021년 기준 5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보다 6.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7.2배와 비교하면 다소 축소된 수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간값의 경우에는 두 분위 간 격차가 2019년에는 11.7배, 2021년에는 11.8배로 비슷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1분위의 평균 값 증가세가 중간값 증가세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1분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불균형하게 증가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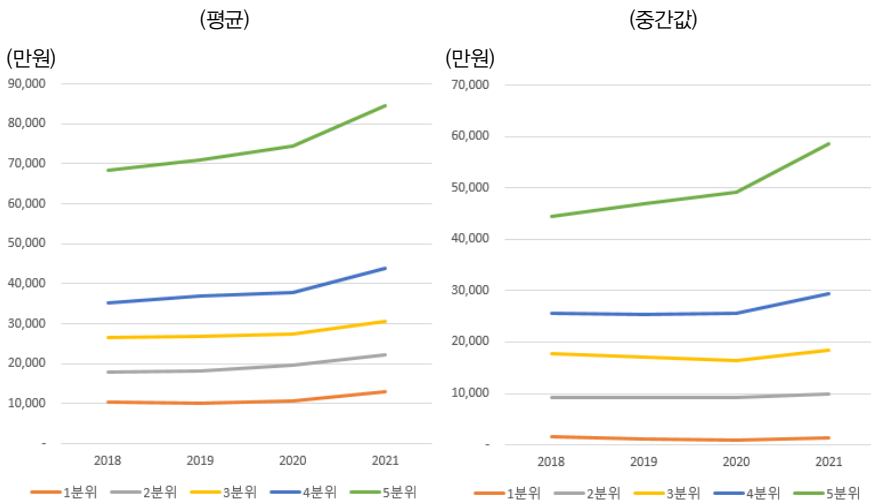
〈그림 Ⅲ-4〉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자산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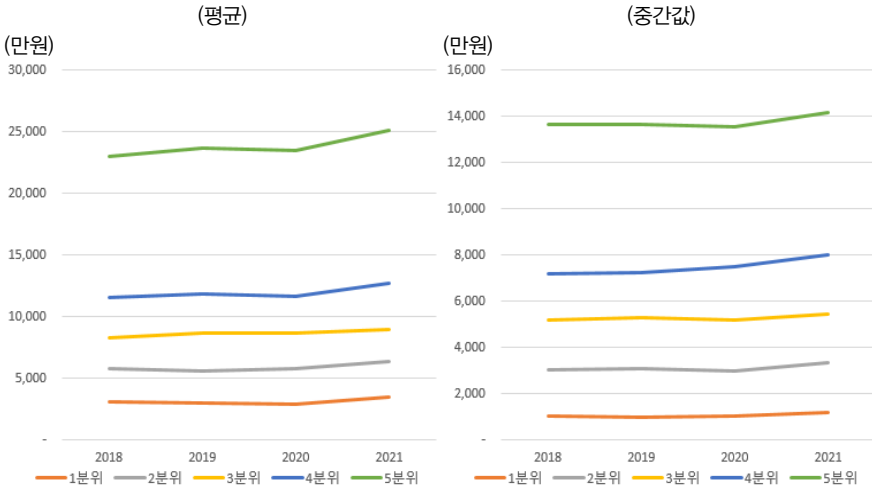
2021년을 기준으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가구당 평균 실물자산 보유액보다는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에서 5분위와 1분위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5분위가 1분위에 비해 6.5배 정도 많았지만,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분위와 1분위 간 격차가 2019년 이후 축소되는 모습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면 실물자산의 경우 5분위와 1분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두 분위 간 격차는 4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42.7배보다는 상당폭 확대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11.9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19년 13.5배보다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5〉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실물자산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그림 Ⅲ-6〉 최근 소득분위별 가구당 금융자산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가구당 금융자산 보유상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보유액 기준으로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절대 금액으로는 5분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순차적으로 감소하여 1분위가 가장 적게 증가하였지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1분위가 가장 높게 증가하면서 5분위와 1분위 간 격차는 2019년 6.8배에서 2021년 6.2배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저축과 보험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소득분위별로 일부 소득분위의 경우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보유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른 모든 소득분위에서는 보유액이 감소하였는데, 소득 2분위는 평균 저축보유액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소득 1분위와 5분위는 모두 가구당 저축보유액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폭의 차이에 따라 두 분위 간 격차는 2019년 6.7배에서 2021년 6.5배로 다소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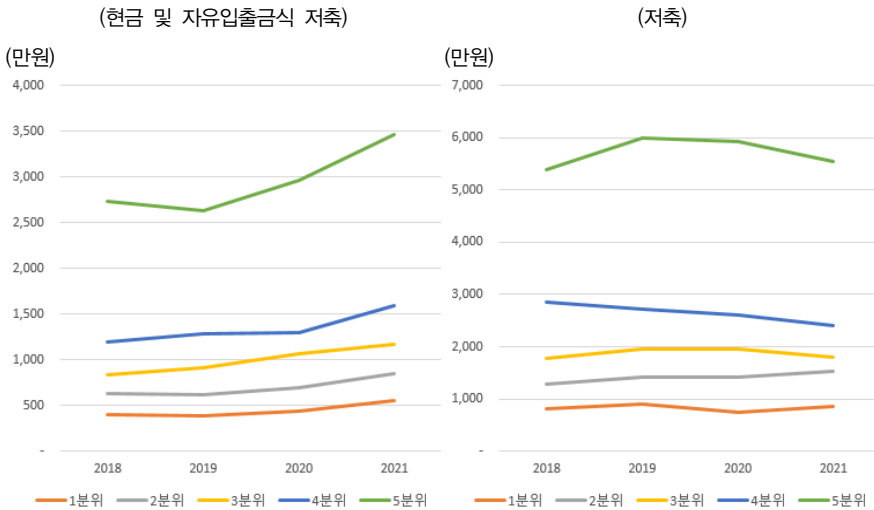
보험의 경우에는 2021년 가구당 평균 보유액을 2019년과 비교하여 보면 소득 1분위와 4분위는 증가한 반면 여타 분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6.5% 정도 증가한 반면 5분위는 9.6% 정도 감소함에 따라 두 분위 간 격차는 12.8배에서 10.9배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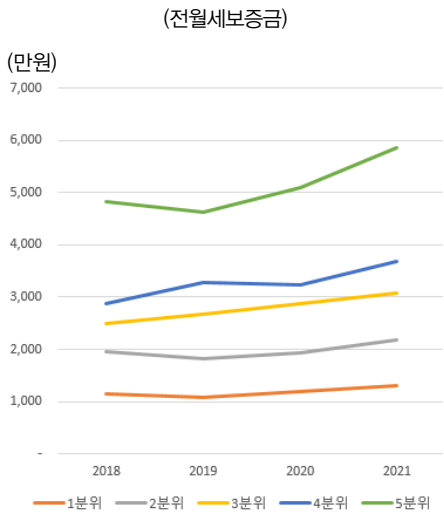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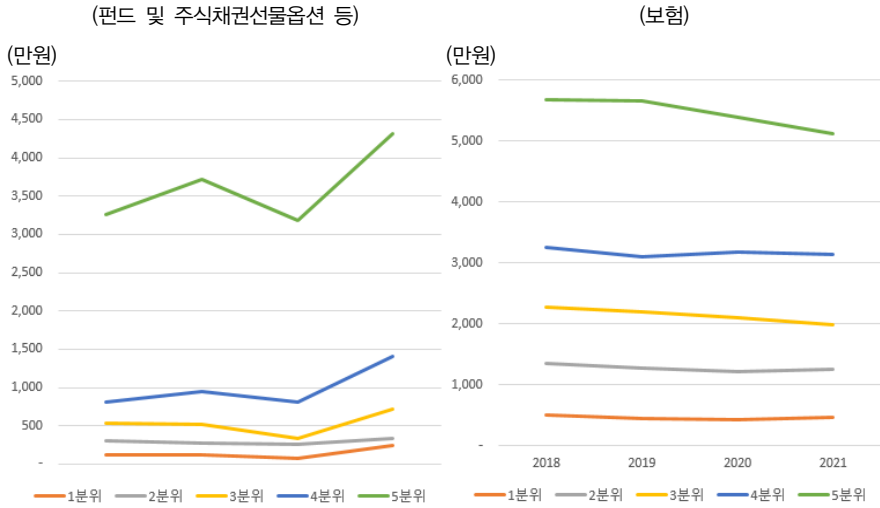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금융자산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급증하면서 2021년 보유액은 모든 분위에서 2019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분위 해당자의 보유액이 급증하면서 두 분위간 격차가 2019년 31.9배에서 2021년 17.7배까지 급격히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전분위에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도 증가하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들이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의 금액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세 보증금의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를 보면 2019년 4.3배에서 2021년 4.5배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최근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이러한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세부 내역의 추이들을 자산을 보유한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 관점에서 보면 상기한 세부 내역의 추이를 좀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축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인 분위가 2분위인데 이들의 증가분을 분해하여 보면 보유자 비중은 축소된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보유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분위들의 경우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이 모두 축소되었는데 보유 가구 비중의 경우 5분위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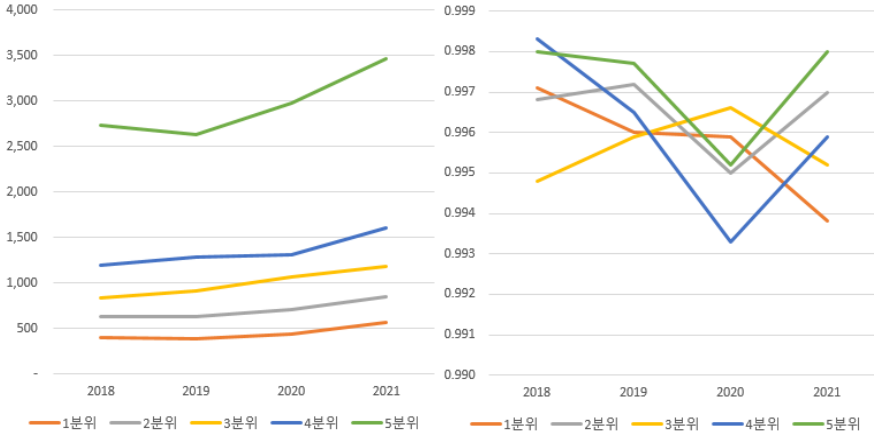
보험의 경우에도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보험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5분위를 제외하면 보유액이 증가하였거나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만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두 기간 동안 19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보험은 장기적인 저축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경우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금액이 증가한 측면보다는 보유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4,5분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1년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의 경우에는 보유 가구 비중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분위와는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금액은 5분위가 가장 높고 1분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2021년에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유 비중의 경우에도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전체 소득분위에서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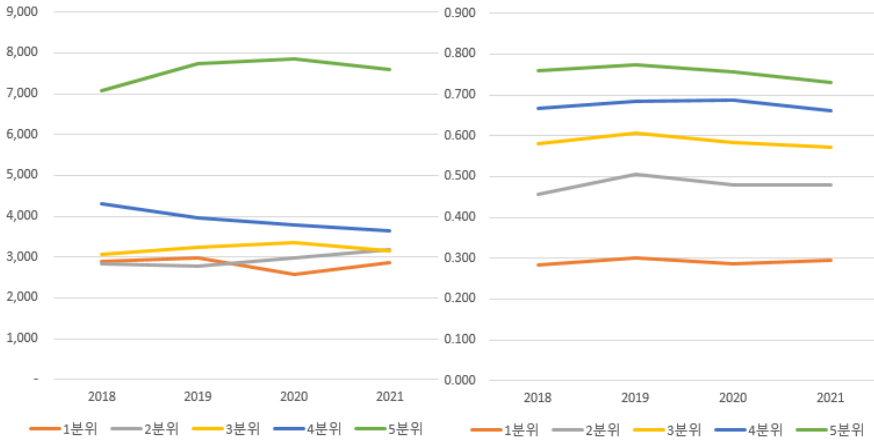
〈그림 Ⅲ-8〉 최근 소득분위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보유가구당 보유액)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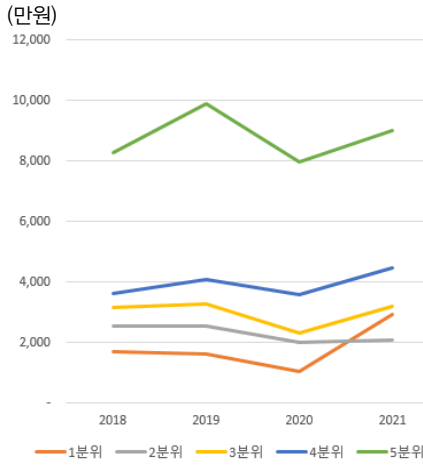


(저축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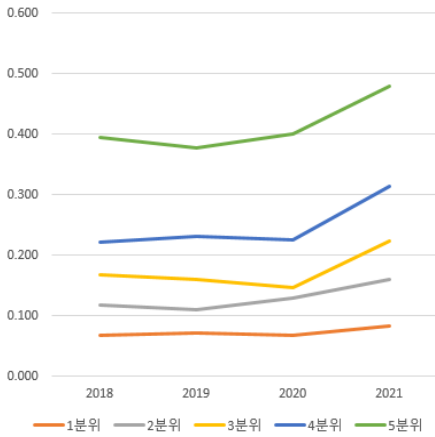
(저축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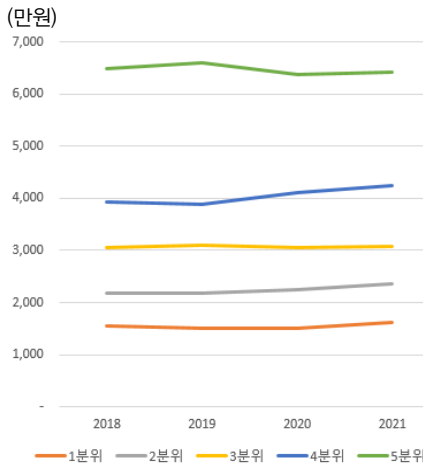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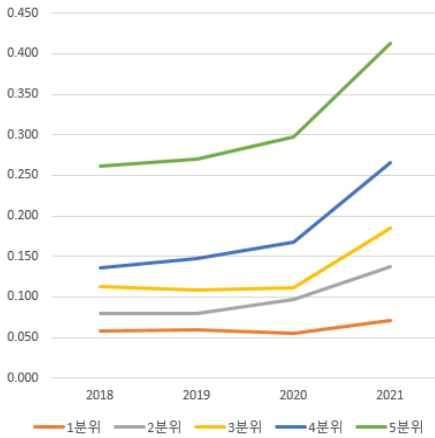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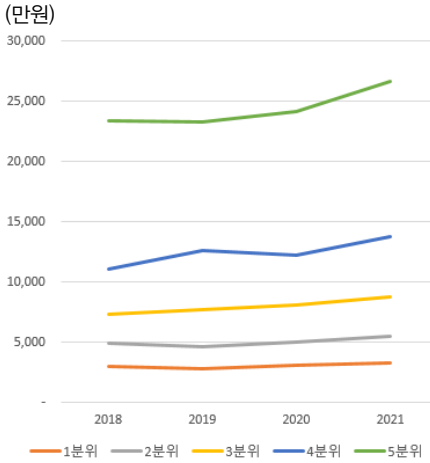
(보험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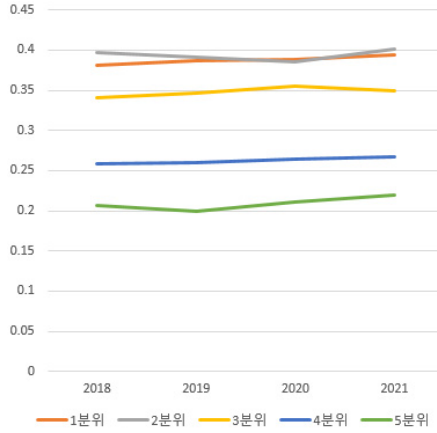
(보험 보유가구 비중)



(전월세 보증금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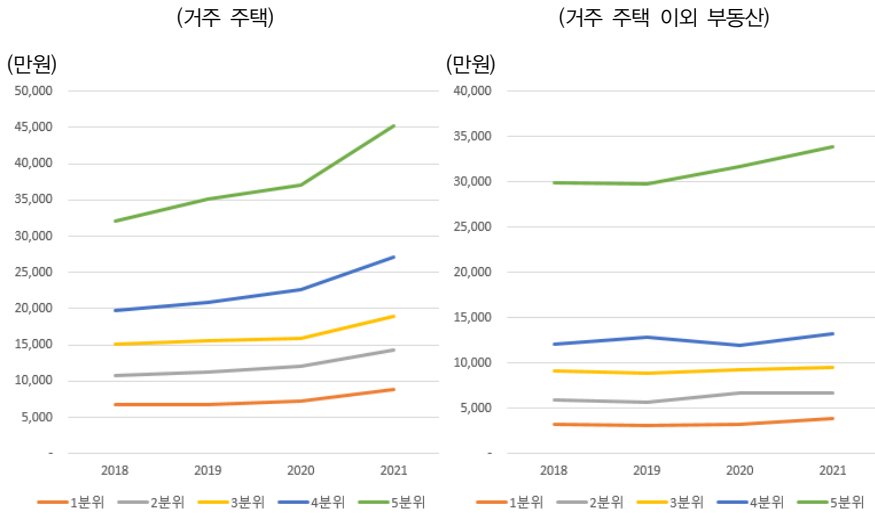
(전월세 보증금 보유가구 비중)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한편 실물자산을 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유사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분위와 1분위의 격차도 2019년과 2021년 모두 5.1~5.2배 정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1, 2분위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 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분위와 1분위 격차가 2019년 9.6배에서 8.8배 정도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9〉 최근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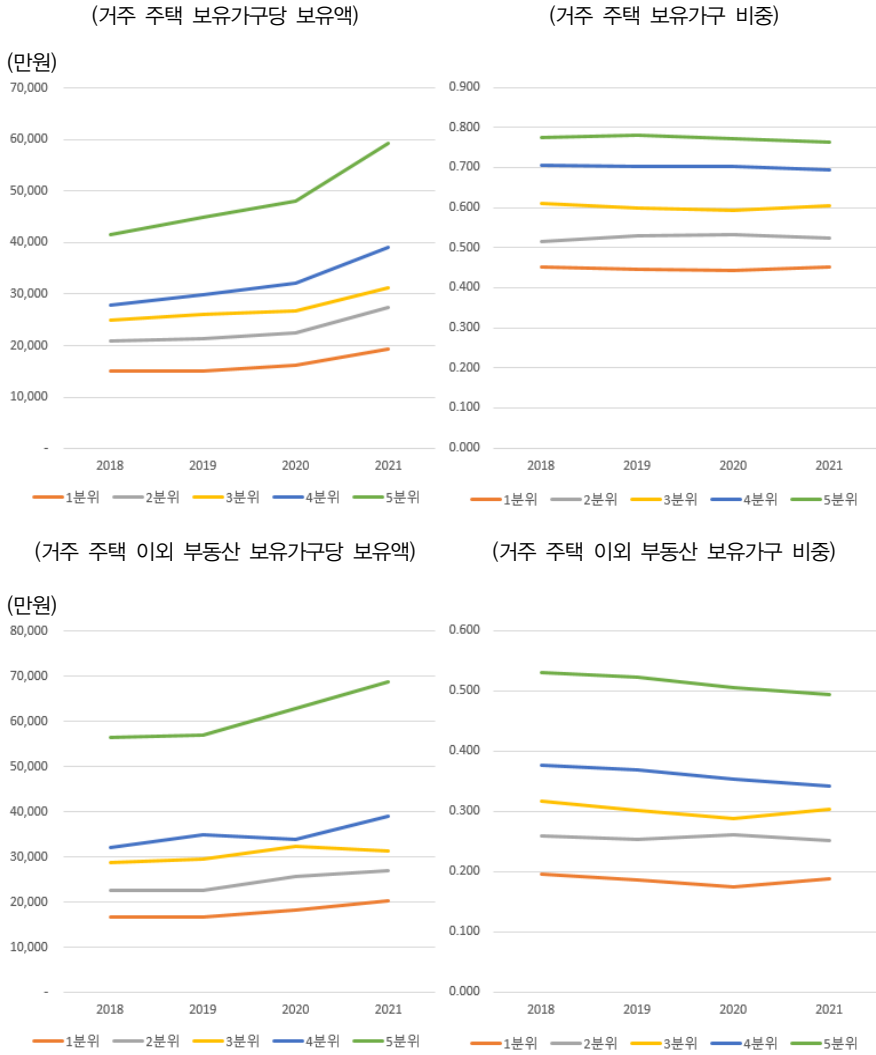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실물자산도 세부 내역별로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거주 주택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보유 비중은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큰 폭은 아니지만 1분위의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였고, 5분위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19년에 비해 2021년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은 모든 분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 보유자의 보유액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4~5분위 고소득층의 경우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유 가구 비중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3분위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유 가구 비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 고소득층과 차별화된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10〉 최근 소득분위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연령별 가구당 자산 추이

연령별 분석의 경우에도 자산보유 규모를 살펴보기 이전에 연령별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60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미만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미만의 경우 2020년에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대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적은 30세 미만과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의 격차를 보면 2019년 1.87배에서 2021년 1.94배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표 Ⅲ-5〉 최근 가구당 평균 처분가능소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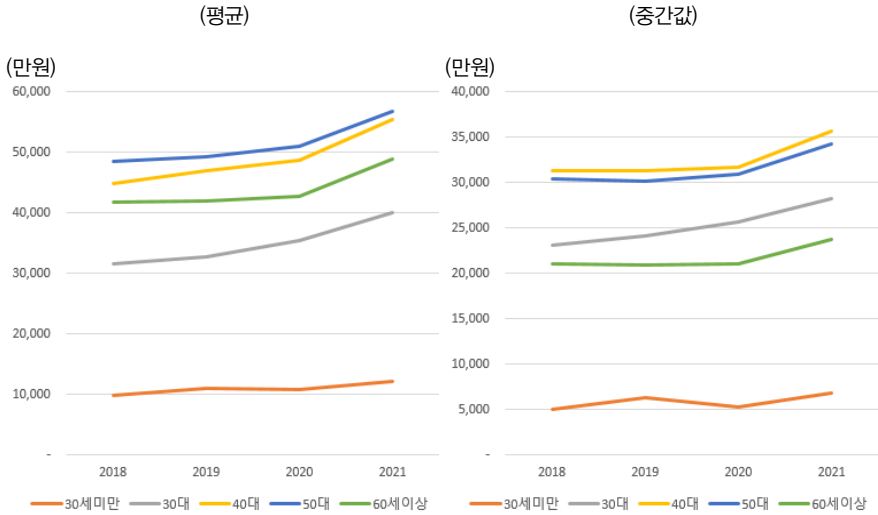
(단위 : 만원)

	2018	2019	2020	2021
전체	4,671	4,729	4,818	5,003
30세미만	3,051	3,171	3,038	3,189
30대	4,691	4,849	5,123	5,364
40대	5,700	5,876	6,079	6,116
50대	5,907	5,939	6,053	6,178
60세이상	3,202	3,278	3,378	3,660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연령별로 보면 가구당 평균 자산보유액은 50대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40대, 60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50대와 가장 적은 30대 미만의 격차를 보면 2019년 4.5배에서 2021년 4.7배로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값을 보면 50대보다는 4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보다는 3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나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의 자산보유액이 보다 큰 것으로 부의 편차가 50대나 60대보다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1〉 최근 연령별 가구당 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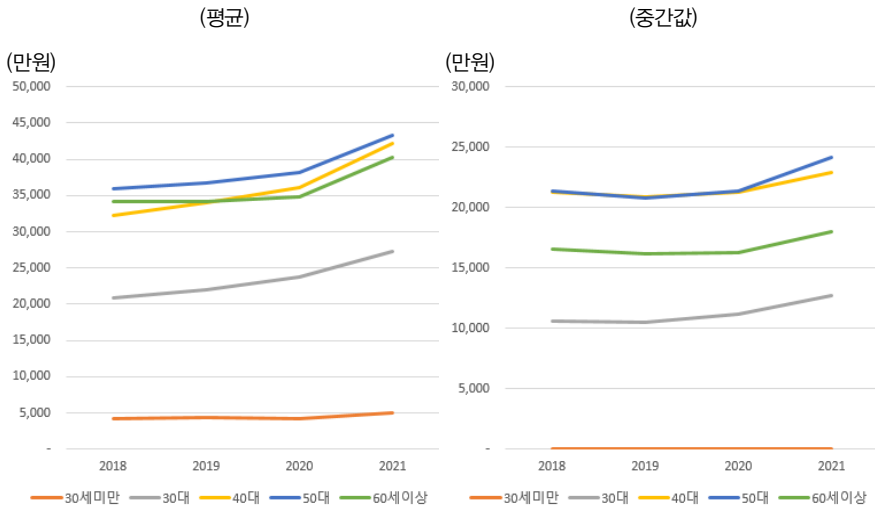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구분하여 보면 우선 가구당 평균 실물자산 보유액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40대의 평균 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40대의 급증세로 인해 2019년 이전에는 40대보다 60대의 평균 보유액이 더 높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40대와 50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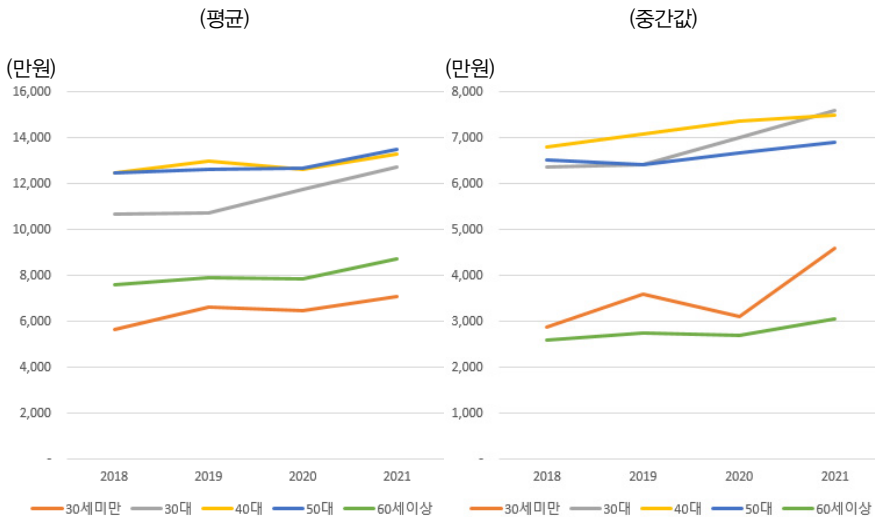
한편 금융자산의 경우 30대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2019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중간값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중간값의 경우 2019년에는 40대와 50대의 중간값이 30대보다 높았지만 2021년에는 30대의 중간값이 가장 높아졌다.

〈그림 Ⅲ-12〉 최근 연령별 가구당 실물자산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그림 Ⅲ-13〉 최근 연령별 가구당 금융자산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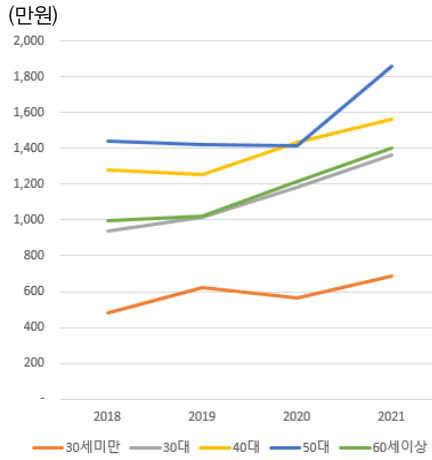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주요 세부 내역별로 가구당 평균 보유액을 비교하여 보면 현금 및 수시입출금식 저축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다만 30대 미만이 보유액도 가장 낮은 가운데 코로나 시작 이후 증가 폭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과 보험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저축과 보험 모두 30대 미만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보유액을 비교하여 보면 2년 동안 30대 이상은 한 자리 숫자의 증가율로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27%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액의 추이를 보면 2019년보다 2021년 모든 연령층에서 보유액을 증가시키긴 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미만과 40세 이상의 증가율이 상당히 차별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인데 두 기간 증가율을 보면 60대와 50대, 40대는 각각 24%와 19%,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30대는 89% 증가하였고 30세 미만은 2.1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젊은 층의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보유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1년 30대 가구당 보유액의 경우 60대 가구당 보유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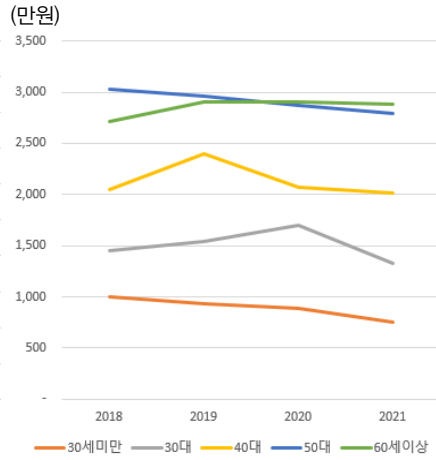
한편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 30대 미만과 40대가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전월세보증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역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요구하는 전월세보증금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14〉 최근 연령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 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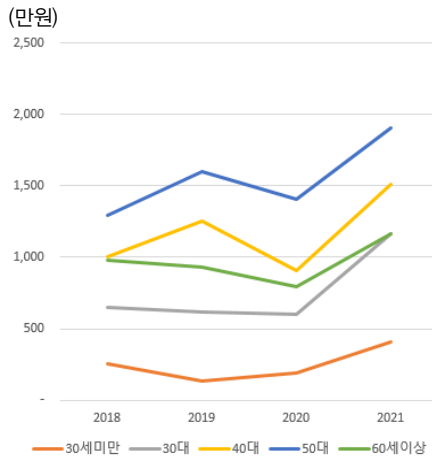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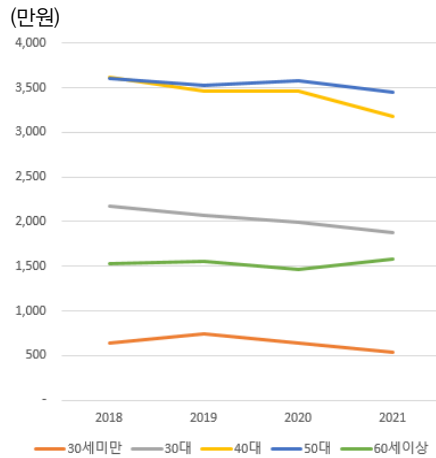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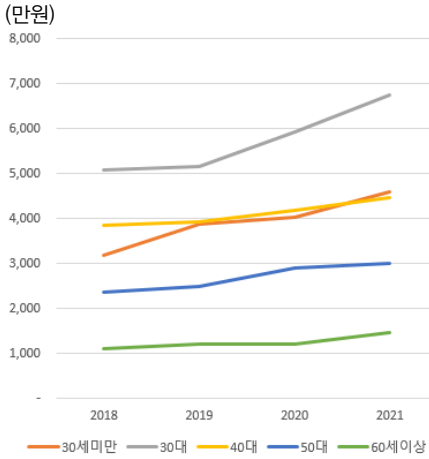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험)



(전월세보증금)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나이가 연령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 내역 변화를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선 60대 이상의 경우 저축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가장 높지만 저축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 보유액은 30대 미만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저축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을 보면 가장 높게 나타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평균 보유액이 가장 낮은 가운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큰 수치의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축 보유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저축을 해지한 경우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특히 30대와 30대 미만의 경우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소폭이나마 증가하였지만, 보유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경우, 가구당 보유액은 큰 변화 없이 보유 가구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보유 가구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가구당 보유액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구당 보유액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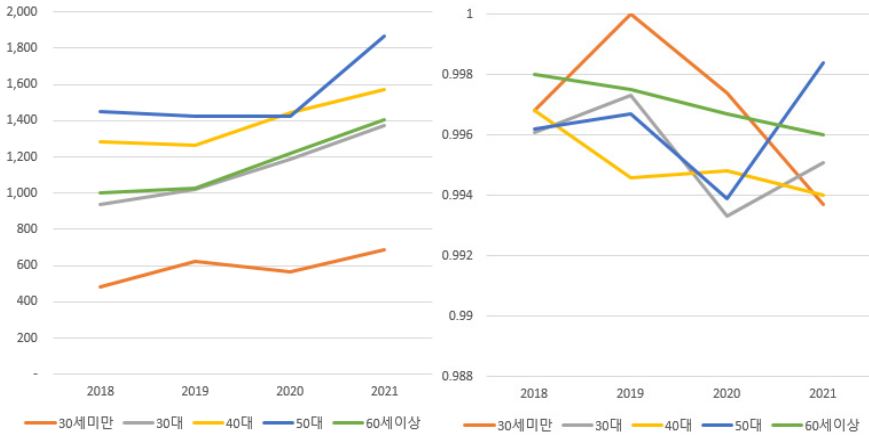
증가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보험을 보유한 가구들이 보험저축을 증가시켰기 때문일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1년 보유 가구의 비중이 전 연령층에서 확대되었는데 특히 30대와 30대 미만 가구에서 보유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처럼 보유 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30대와 30대 미만 가구의 보유가구당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젊은 층의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액 증가는 보유한 가구들이 투자를 크게 증가시킨 측면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40대나 50대의 경우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보유한 가구의 비중은 상당폭 증가하였는데 보유가구당 보유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과는 또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보유 가구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보유가구당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40대나 50대와는 또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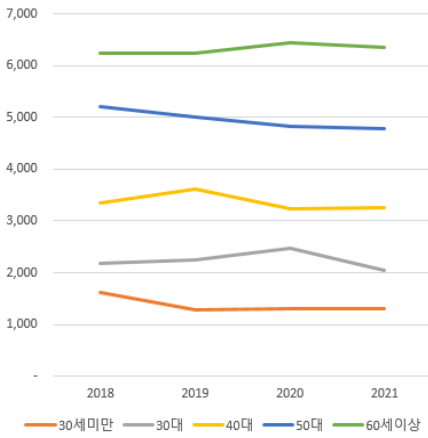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유가구당 보유액을 보면 30대와 40대의 보유금액이 높고 그다음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과 30세 미만은 상대적으로 보유가구당 보증금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 사태 전후를 비교하여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모든 연령대에서 보유가구당 보유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보유 가구의 비중을 보면 보유가구당 보유금액이 낮았던 30대 미만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30대 미만이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가구당 보유금액은 가장 낮아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 비중의 경우에도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 30대 미만과 30대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더욱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Ⅲ-15〉 최근 연령별 금융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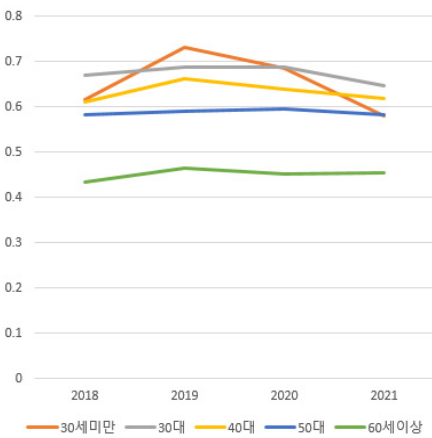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보유가구당 보유액) (현금 및 자유입출금식 저축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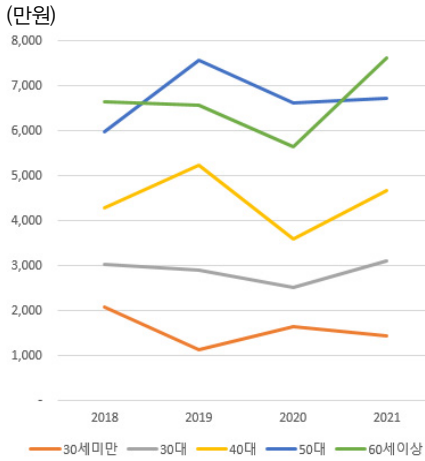
(저축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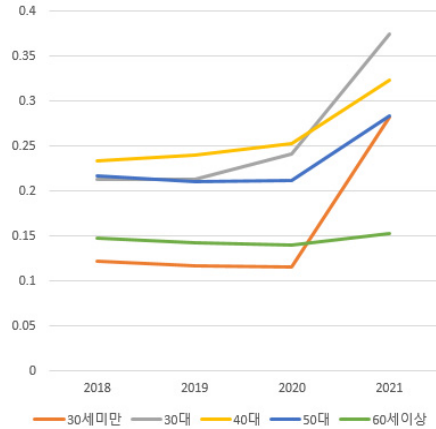
(저축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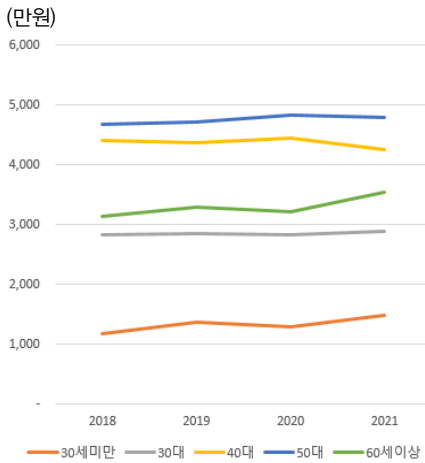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가구당 보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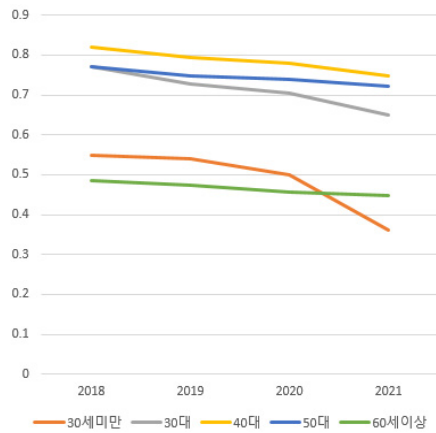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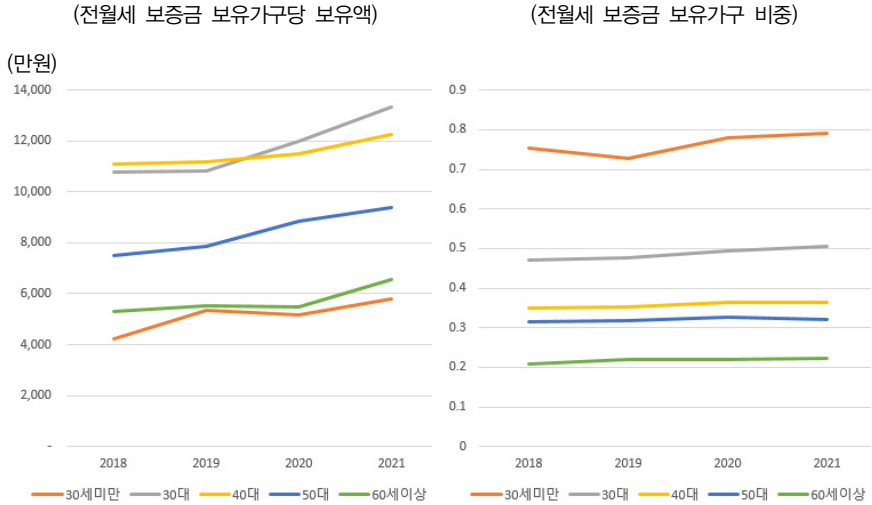


(보험 보유가구당 보유액)



(보험 보유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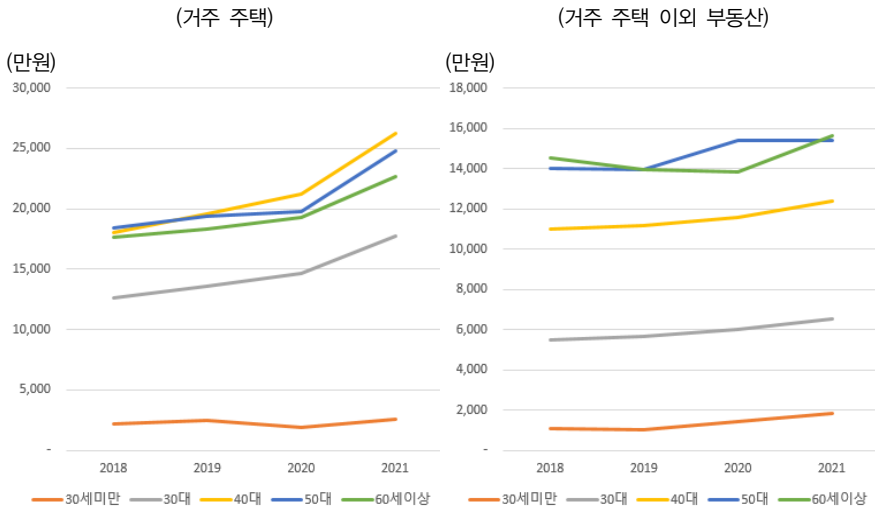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한편 실물자산을 보면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30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거주 주택 보유액이 2019년 대비 2021년 거의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40대와 30대 미만의 격차를 보면 2019년에는 7.7배 정도이던 격차가 2021년에는 10.3배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액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가장 많은 50대와 30대 미만의 격차를 보면 2019년에는 13.9배 정도이던 격차가 2021년에는 8.3배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Ⅲ-16〉 최근 연령별 주요 세부내역 가구당 평균 보유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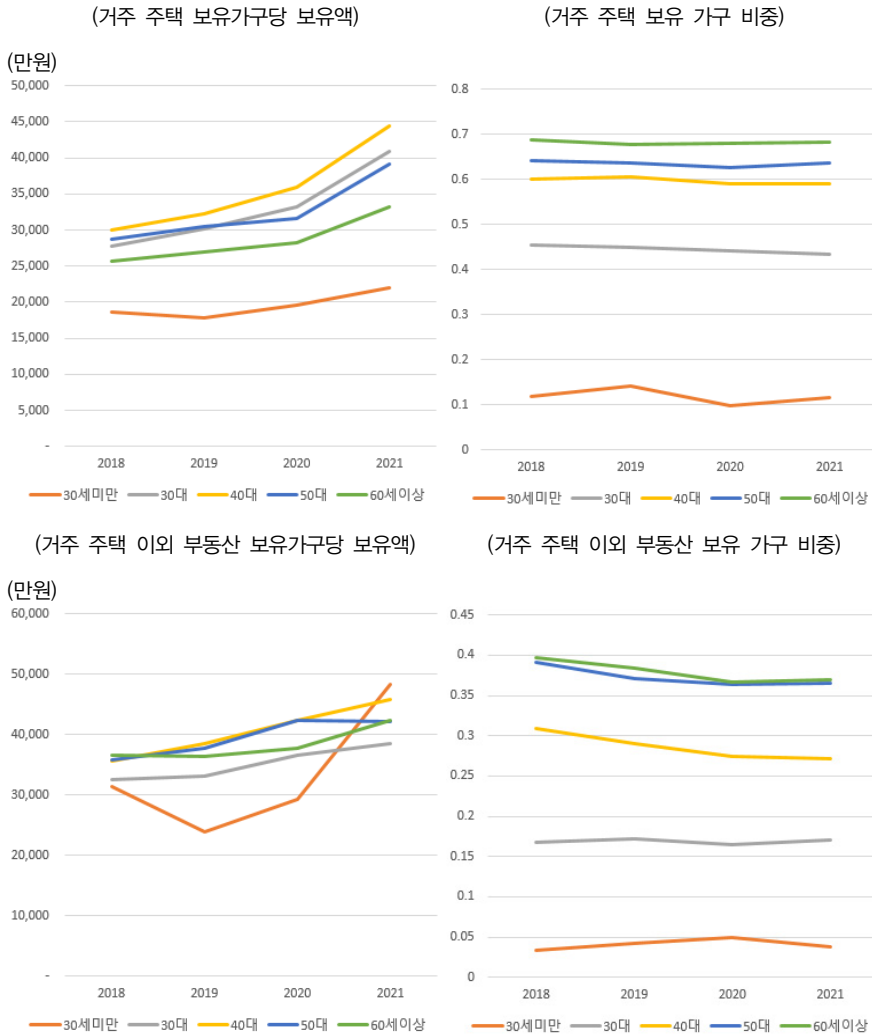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실물자산 역시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거주 주택의 경우 우선 보유 가구 비중 추이를 보면 다른 연령대는 보유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30세 미만 거주 주택보유 가구의 평균 보유액은 상당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0세 미만의 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의 경우에도 30대 미만의 추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세 미만의 보유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다른 연령대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가구당 평균 보유액이 2019년에는 가장 적은 계층이었지만 2021년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한 계층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최근 연령별 실물자산 주요 세부내역 보유 가구 비중과
보유가구의 평균 보유액 추이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저자 계산

IV. 코로나 전후 가계 자산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가계의 특정 자산보유에 대한 결정요인이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 국가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근간으로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Arrondel, L. et al(2016)의 실증분석 모형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Arrondel, L. et al(2016)는 개별 가계들의 각 세부 자산별 보유 여부(extensive margin)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빗모형과 자산별 보유 규모(intensive margin)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 자산별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빗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y_{ij}^* = x_{ij}'\beta_j + \epsilon_{ij}$$

위에서 x_{ij} 는 가계(가구) i 의 j 자산의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벡터, β 는 추정대상 파라미터 벡터, y_{ij}^* 는 가계의 j 자산 보유 여부를 나타내는 기저변수이다. y_{ij}^* 는 다만 그 값이 양인지 음인지 여부만을 나타낸다. 그리고 ϵ_{ij} 가 평균 0, 분산 σ_j^2 인 정규분포인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프로빗모형이 성립한다. 이 프로빗 모형을 통해 가계(가구)가 j 자산을 보유하는 성향이 가계의 특성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추정하여 볼 수 있다.

나아가 보유 여부에서 나아가 특정 자산의 보유 규모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토빗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하였다.

$$z_{ij}^* = x_{ij}'\beta_j + \epsilon_{ij}$$

$$z_{ij} = \max(0, z_{ij}^*)$$

위에서 z_{ij}^* 는 가계(가구) i 의 j 자산규모의 Inverse Hyperbolic Sine 변환값을 가리키고 x_{ij} 는 프로빗분석과 동일하다. 자산규모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Inverse Hyperbolic Sine 변환값은 양의 값이나 0의 값을 가지는 절단된 변수(truncated variable)이다. 즉, 가계(가구)가 자신의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 자산 j 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ϵ_{ij} 는 역시 평균 0, 분산 σ_j^2 인 정규분포인 확률변수로 가정하였다. 이 실증분석을 통해 가계의 특성과 가계(가구)의 j 자산규모에 대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분석대상의 경우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결과와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대상 변수로는 금융자산의 경우 저축, 보험,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을,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 거주 주택의 부동산 변수를 선정하였다.³⁾ 그리고 결정요인을 위한 독립변수들의 경우에는 Arrondel et al(2016)에서 이용한 변수인 가구원 수, 결혼상태, 성별, 거주 위치로 수도권 여부, 교육 정도, 종사상 지위, 그리고 연령, 소득분위, 은퇴 여부 등을 이용하였다.⁴⁾

분석에 앞서 요약통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산변수의 경우 앞장에서 추이를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과 보험의 평균 보유액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다소 낮아진 반면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보유액은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은 거주 주택 및 거주

3 토빗분석에서는 각 종속변수들을 상기한 바와 같이 Inverse Hyperbolic Sine 함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4 Arrondel, L. et al(2016)에서는 소득분위 외에 순자산 5분위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Arrondel, L. et al(2016)에서도 논의하듯이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ndel, L. et al(2016)에서는 순자산이 세부 자산의 보유성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명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본문에서는 순자산5분위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고 참고자료에 소득 5분위 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순자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주 주택이나 거주 주택의 부동산의 분석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5분위 변수를 포함시켜도 주요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 부동산 보유액이 동 기간을 비교할 때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성변수들을 보면 가구원 수, 수도권 거주 여부, 남성 등의 변수에서 2021년 응답자들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화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원 수는 대략 2.5명 전후이며 수도권 거주 비중은 1/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고졸 이하가 2/3 정도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2/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평균은 1,146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190만 원 정도 증가하였고, 소득 5분위 평균은 11,077만 원으로 2019년에 35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간 격차를 보면 2019년 11.2배에서 2021년 9.7배로 축소되었다.

한편 순자산 5분위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 평균은 1,098만 원으로 2019년보다 1,052만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 5분위 평균은 132,237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61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위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 순자산을 기준으로 순자산 5분위와 순자산 1분위간 격차는 2019년 50배에서 2021년 120배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20% 정도가 은퇴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퇴자의 비중은 2019년보다 2021년이 약 0.9%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요약 통계량

자산변수	2019		2021	
	관측치	평균(만원)	관측치	평균(만원)
저축	18,406	2,575	18,187	2,419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18,406	1,034	18,187	1,274
보험	18,406	2,396	18,187	2,238
전월세 보증금	18,406	2,197	18,187	2,431
거주 주택	18,406	16,391	18,187	20,116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18,406	12,113	18,187	13,045
특성변수				
	관측치	비중 또는 평균(만원)	관측치	비중 또는 평균(만원)
가구원수	18,406	2,545	18,187	2,421
수도권 여부				
수도권	6,084	0.331	5,892	0.324
비수도권	12,322	0.670	12,295	0.676
성별				
남	13,778	0.747	13,237	0.728
여	4,628	0.251	4,950	0.27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259	0.612	11,052	0.608
대학교 졸업 이하	6,125	0.333	6,157	0.339
대학원 졸업 이하	1,022	0.056	978	0.054
연령				
30세 미만	381	0.021	427	0.024
40세 미만	2,164	0.118	1,815	0.100
50세 미만	3,584	0.195	3,286	0.181
60세 미만	4,358	0.237	4,061	0.223
60세 이상	7,919	0.430	8,598	0.473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7,084	0.385	6,767	0.37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4,085	0.222	4,053	0.223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2,626	0.143	2,546	0.140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4,611	0.251	4,821	0.265
혼인상태				
미혼	1,648	0.090	1,913	0.105
기혼	12,035	0.654	11,342	0.624
사별 혹은 이혼	4,723	0.257	4,932	0.271
소득 5분위				
1분위	4,398	957	4,560	1,147
2분위	3,862	2,324	3,859	2,533
3분위	3,538	3,850	3,549	4,119
4분위	3,372	5,785	3,169	6,109
5분위	3,236	10,719	3,050	11,077
순자산 5분위				
1분위	3,945	2,151	4,033	1,099
2분위	3,930	9,652	3,882	9,889
3분위	3,712	20,675	3,661	22,756
4분위	3,444	36,665	3,429	44,720
5분위	3,375	107,625	3,182	132,238
은퇴 여부				
은퇴	3,652	0.198	3,771	0.207
은퇴 X	14,754	0.802	14,416	0.793

분석결과⁵⁾를 보면 우선 저축 결정요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저축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졸 또는 대졸 이상이거나 상용근로자일수록 저축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퇴 여부는 저축성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의 주된 대상인 소득 5분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축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축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50대에 비해 저축성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1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1년의 계수의 크기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그래프 분석에서 5분위의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 2021년 의미있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에는 30세 미만을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 변수들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래프 분석에서도 저축 보유 가구 비중이 30대 미만에서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증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저축에 대한 토빗 분석결과를 보면 프로빗분석결과와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관련 계수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저축보유비중뿐만 아니라 저축보유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계수들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축보유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경우 30~60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보유액이 높지는 않은 모습도 보유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과 2021년의 계수 크기를

5 2019년과 2021년의 계수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z-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5%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였다.

〈표 IV-2〉 저축 결정요인 분석

Dep: 저축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46 (0.014)***	-0.032 (0.015)**	-0.280 (0.066)***	-0.262 (0.075)***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134 (0.022)***	-0.078 (0.023)***	-0.417 (0.108)***	-0.234 (0.119)**
	성별[기준: 남자]				
	여자	0.238 (0.034)***	0.263 (0.035)***	1.098 (0.172)***	1.407 (0.188)***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218 (0.027)***	0.149 (0.028)***	1.230 (0.132)***	0.936 (0.147)***
	대학원 졸업 이하	0.232 (0.054)***	0.226 (0.056)***	1.357939 (0.225)***	1.367221 (0.258)***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348 (0.084)***	-0.043 (0.094)	-1.185 (0.323)***	-0.203 (0.467)
	50세 미만	-0.399 (0.083)***	-0.091 (0.093)	-1.155 (0.323)***	-0.200 (0.467)
	60세 미만	-0.520 (0.084)***	-0.107 (0.093)	-1.420 (0.333)***	-0.076 (0.472)
	60세 이상	-0.429 (0.086)***	-0.076 (0.095)	-0.700 (0.347)**	0.349 (0.483)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205 (0.031)***	-0.156 (0.032)***	-0.951 (0.149)***	-0.694 (0.166)***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212 (0.036)***	-0.224 (0.038)***	-1.173 (0.186)***	-1.295 (0.209)***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282 (0.051)***	-0.276 (0.052)***	-1.341 (0.282)***	-1.413 (0.305)***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268 (0.050)***	0.163 (0.053)***	1.088 (0.248)***	0.792 (0.281)***
	사별 혹은 이혼	-0.029 (0.049)	-0.140 (0.051)***	-0.710 (0.252)***	-1.111 (0.279)***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411 (0.034)***	0.384 (0.035)***	2.692 (0.203)***	2.671 (0.220)***
	3분위	0.606 (0.039)***	0.571 (0.040)***	3.861 (0.217)***	3.841 (0.235)***
	4분위	0.785 (0.042)***	0.764 (0.044)***	4.925 (0.228)***	5.043 (0.250)***
	5분위	1.016 (0.048)***	0.914 (0.049)***	6.357 (0.242)***	6.159 (0.268)***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028 (0.055)	0.018 (0.054)	-0.009 (0.311)	0.286 (0.330)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비교하여 보면 z-test 결과 50대 계수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저축 보유 가구의 비중이 크게 변화한 것에 비하면 저축보유액의 변화폭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30대 미만에서 저축 보유 가구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과는 달리 저축을 보유한 가구의 저축액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보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저축과는 달리 비수도권의 보험 보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비수도권의 보험 보유성향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의 경우에는 저축에 비해 고졸 이하와 대졸 또는 대학원 졸업 이상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퇴 여부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은퇴 후에는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관련 계수들을 보면 저축과 유사하게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관련 계수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만 2019년에는 30세 미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유성향이 높긴 하나 그 차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1년 계수를 비교하면 보면 우선 2019년과 동일하게 2021년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이 계속 높아지긴 하지만, 그 성향 정도가 2019년보다 2021년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의 격차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을 보유하는 성향의 격차가 2019년보다 2021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30대 미만의 보유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토빗분석결과를 보면 보험의 경우 역시 프로빗분석결과와 전체적인 분석결과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표 IV-3〉 보험 결정요인 분석

Dep: 보험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01	-0.002	0.024	0.007
		(0.015)	(0.016)	(0.056)	(0.068)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275	0.360	1.119	1.687
		(0.023)***	(0.024)***	(0.093)***	(0.111)***
성별[기준: 남자]	여자	0.180	0.188	0.771	0.910
		(0.036)***	(0.036)***	(0.150)***	(0.172)***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047	0.068	0.293	0.373
		(0.030)	(0.030)**	(0.110)***	(0.133)***
	대학원 졸업 이하	-0.079	-0.047	-0.027	0.003
	(0.057)	(0.058)	(0.197)	(0.249)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205	0.465	1.231	2.817
		(0.086)**	(0.097)***	(0.382)***	(0.546)***
	50세 미만	0.390	0.723	2.070	4.118
		(0.086)***	(0.096)***	(0.379)***	(0.541)***
	60세 미만	0.286	0.700	1.794	4.081
	(0.087)***	(0.097)***	(0.384)***	(0.544)***	
60세 이상	0.008	0.352	0.610	2.469	
	(0.089)	(0.099)***	(0.395)	(0.555)***	
층상장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81	-0.057	-0.235	-0.142
		(0.033)**	(0.034)*	(0.116)**	(0.143)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170	-0.167	-0.737	-0.818
		(0.038)***	(0.040)***	(0.159)***	(0.191)***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234	-0.192	-0.905	-0.864
	(0.054)***	(0.054)***	(0.243)***	(0.273)***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336	0.203	1.601	1.099
		(0.052)***	(0.054)***	(0.220)***	(0.259)***
	사별 혹은 이혼	0.042	-0.005	0.100	-0.124
	(0.051)	(0.052)	(0.227)	(0.256)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518	0.450	2.965	2.820
		(0.035)***	(0.036)***	(0.178)***	(0.202)***
	3분위	0.770	0.636	4.223	3.838
		(0.040)***	(0.041)***	(0.190)***	(0.217)***
	4분위	0.973	0.836	5.061	4.903
	(0.045)***	(0.047)***	(0.197)***	(0.231)***	
5분위	1.136	0.988	5.785	5.672	
	(0.051)***	(0.052)***	(0.209)***	(0.245)***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296	-0.279	-1.806	-1.806
		(0.056)***	(0.055)***	(0.273)***	(0.301)***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보험 보유액이 커지는 경향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2019년과 2021년 계수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소득 5분위 관련 계수들의 경우 2019년과 2021년 계수의 차이가 유의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2021년의 보험 보유 가구의 가구당 보유액을 비교해 보면 소득이 높다고 보험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대신 소득 1분위에서 보험 보유 가구 비중은 낮아졌지만 보험 보유 가구의 가구당 보유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연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프로빗분석결과와 유사하게 2019년보다 2021년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 보유액이 커지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위험자산 보유성향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여부나 성별, 은퇴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가구원 수는 적을수록, 교육 정도는 대졸이나 대학원 졸업으로 갈수록,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임시, 일용근로자나 무직, 학생 등에 비하여 위험자산을 보유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의 경우에는 저축이나 보험과 동일하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리스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여 보면 이처럼 리스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의미있게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별 계수의 경우에는 2019년과 2021년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리스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그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젊은 층의 리스크 금융자산 보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분석결과는 토빗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리스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성향뿐만 아니라 리스크 금융자산 보유액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결정요인 분석

Dep: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92	-0.060	-0.943	-0.552
		(0.016)***	(0.016)***	(0.160)***	(0.142)***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039	-0.019	0.254	-0.248
		(0.026)	(0.025)	(0.260)	(0.223)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42	-0.028	0.405	-0.343
		(0.041)	(0.040)	(0.428)	(0.361)
교육경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332	0.376	3.599	3.579
		(0.031)***	(0.031)***	(0.318)***	(0.279)***
	대학원 졸업 이하	0.460	0.456	4.920	4.339
		(0.053)***	(0.054)***	(0.507)***	(0.447)***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290	0.003	3.244	-0.030
		(0.110)***	(0.097)	(1.138)***	(0.851)
	50세 미만	0.401	-0.109	4.431	-0.746
		(0.109)***	(0.096)	(1.128)***	(0.848)
	60세 미만	0.381	-0.134	4.366	-0.852
	(0.110)***	(0.097)	(1.140)***	(0.858)	
	60세 이상	0.512	-0.182	5.670	-1.291
		(0.112)***	(0.099)*	(1.159)***	(0.882)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10	-0.003	0.067	-0.010
		(0.033)	(0.034)	(0.339)	(0.302)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404	-0.284	-4.222	-2.628
		(0.047)***	(0.046)***	(0.497)***	(0.426)***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236	-0.190	-2.246	-1.580
		(0.070)***	(0.062)***	(0.737)***	(0.573)***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042	0.021	0.337	-0.029
		(0.059)	(0.057)	(0.596)	(0.503)
	사별 혹은 이혼	-0.229	-0.159	-2.477	-1.643
		(0.060)***	(0.057)***	(0.618)***	(0.518)***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126	0.198	1.589	2.058
		(0.047)***	(0.046)***	(0.501)***	(0.444)***
	3분위	0.294	0.339	3.434	3.558
		(0.051)***	(0.050)***	(0.540)***	(0.471)***
	4분위	0.532	0.566	6.022	5.824
	(0.053)***	(0.053)***	(0.554)***	(0.497)***	
	5분위	0.894	0.943	9.773	9.214
		(0.056)***	(0.056)***	(0.573)***	(0.511)***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084	-0.120	-0.797	-1.027
		(0.076)	(0.067)*	(0.801)	(0.632)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전월세보증금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수도권일수록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는 보유할 성향이 낮으나 임시, 일용근로자나 무직, 학생 등은 전월세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미혼보다는 기혼이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으나 사별 혹은 이혼이 전월세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여부의 경우에는 은퇴하였을 경우가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의 경우 2019년과 2021년간 보유성향이 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성향이 다르지 않았지만 2021년에는 대졸자의 전월세보증금 보유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대졸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 5분위 계수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월세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술하겠지만 거주 가구를 보유할 성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 계수를 보면 이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할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도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성향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만 2019년과 2021년 계수를 비교하여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코로나 기간 중 특정 특성을 가진 가구에서 전월세로 주거형태를 가져가게 된 비중이 차별적으로 크게 변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IV-5〉 전월세 보증금 결정요인 분석

Dep: 전월세 보증금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65	-0.068	-0.497	-0.533
		(0.0154)***	(0.0167)***	(0.1337)***	(0.1451)***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5300	-0.513	-4.833	-4.708
		(0.0234)***	(0.0243)***	(0.1934)***	(0.1986)***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14	-0.062	0.188	-0.237
		(0.0354)	(0.0360)*	(0.2753)	(0.2755)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006	-0.106	0.389	-0.605
		(0.0299)	(0.0314)***	(0.2567)	(0.2620)**
	대학원 졸업 이하	0.034	-0.034	0.870	0.116
		(0.0610)	(0.0666)	(0.5576)	(0.5947)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351	-0.418	-1.583	-1.498
		(0.0886)***	(0.1040)***	(0.5171)***	(0.5194)***
	50세 미만	-0.599	-0.732	-3.816	-4.324
		(0.0883)***	(0.1029)***	(0.5281)***	(0.5241)***
	60세 미만	-0.753	-0.934	-5.276	-6.182
	(0.0896)***	(0.1037)***	(0.5472)***	(0.5394)***	
	60세 이상	-1.320	-1.491	-9.978	-10.840
		(0.0930)***	(0.1066)***	(0.5870)***	(0.5753)***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85	-0.103	-0.929	-1.0880
		(0.0347)**	(0.0365)***	(0.3115)***	(0.3250)***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269	0.275	1.908	1.960
		(0.0389)***	(0.0411)***	(0.3109)***	(0.3217)***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184	0.066	1.284	0.254
		(0.0539)***	(0.0562)	(0.4201)***	(0.4379)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255	-0.286	-1.366	-1.574
		(0.0528)***	(0.0558)***	(0.4174)***	(0.4410)***
	사별 혹은 이혼	0.156	0.098	1.862	1.499
		(0.0514)***	(0.0525)*	(0.3817)***	(0.3865)***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110	-0.080	-0.758	-0.523
		(0.0365)***	(0.0377)**	(0.2880)***	(0.2930)*
	3분위	-0.195	-0.184	-1.160	-1.070
		(0.0419)***	(0.0434)***	(0.3426)***	(0.3510)***
	4분위	-0.444	-0.410	-3.228	-2.918
	(0.0465)***	(0.0489)***	(0.3927)***	(0.4114)***	
	5분위	-0.628	-0.524	-4.878	-3.879
		(0.0522)***	(0.0550)***	(0.4556)***	(0.4759)***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220	-0.080	-1.676	-0.486
		(0.0576)***	(0.0581)	(0.4703)***	(0.4736)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한편 실물자산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기한 전월세보증금 분석과 역의 관계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비수도권일수록,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일수록, 기혼일수록 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대졸자의 거주 주택 보유성향이 2019년에 비해 2021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거주 주택을 보유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들은 대체로 2019년과 2021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5분위의 경우 유의하게 계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5분위의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부분과 연관된 결과일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의 급등기를 지나면서 소득 5분위 가구에서 거주 주택의 보유성향이 낮아진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성향들은 대체적으로 토빗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빗분석결과에서는 소득 5분위의 계수가 2019년에 비해 2021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 주택의 보유성향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주 주택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의 경우 거주 주택과는 달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밖의 특성변수들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 보유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거주 주택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기한 그래프 분석에서 다소 다른 연령대나 소득수준에 비해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그룹이 있었으나 다른 특성변수들을 통제하여 실증분석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IV-6〉 거주 주택 결정요인 분석

Dep: 거주 주택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72	0.065	0.436	0.398
		(0.015)***	(0.016)***	(0.082)***	(0.091)***
수도권 여부[기준(Base): 수도권]	비수도권	0.403	0.372	1.794	1.579
		(0.023)***	(0.024)***	(0.136)***	(0.146)***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04	0.077	0.089	0.553
		(0.035)	(0.035)**	(0.228)	(0.239)**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005	0.101	0.328	0.892
		(0.029)	(0.031)***	(0.163)**	(0.177)***
	대학원 졸업 이하	-0.144	-0.035	-0.269	0.337
		(0.055)***	(0.059)	(0.313)	(0.346)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586	0.597	4.980376	5.382233
		(0.103)***	(0.120)***	(0.797)***	(0.964)***
	50세 미만	0.916	0.953	7.175071	7.823766
		(0.102)***	(0.119)***	(0.791)***	(0.953)***
	60세 미만	1.082	1.175	8.042776	9.048899
	(0.103)***	(0.120)***	(0.793)***	(0.955)***	
	60세 이상	1.591	1.670	10.84096	11.77153
		(0.106)***	(0.123)***	(0.799)***	(0.960)***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87	0.074	0.303	0.232
		(0.034)***	(0.035)**	(0.177)*	(0.195)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263	-0.298	-1.698	-1.935
		(0.038)***	(0.041)***	(0.237)***	(0.261)***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198	-0.102	-1.294	-0.691
		(0.054)***	(0.056)*	(0.346)***	(0.362)*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302	0.356	2.590	2.980
		(0.053)***	(0.055)***	(0.362)***	(0.384)***
	사별 혹은 이혼	-0.163	-0.140	-0.396	-0.224
		(0.051)***	(0.052)***	(0.369)	(0.383)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287	0.222	1.959	1.577
		(0.035)***	(0.036)***	(0.227)***	(0.239)***
	3분위	0.420	0.382	2.888	2.683
		(0.041)***	(0.042)***	(0.248)***	(0.260)***
	4분위	0.691	0.602	4.480	4.074
	(0.045)***	(0.047)***	(0.262)***	(0.279)***	
	5분위	0.895	0.742	5.609	4.923
		(0.050)***	(0.053)***	(0.281)***	(0.304)***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157	0.042	1.396	0.682
		(0.056)***	(0.057)	(0.352)***	(0.360)*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IV-7〉 거주 주택외 부동산 결정요인 분석

Dep: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46	-0.078	-0.450	-0.788
		(0.015)***	(0.016)***	(0.145)***	(0.161)***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260	0.301	2.320	2.796
		(0.024)***	(0.025)***	(0.241)***	(0.260)***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09	-0.035	0.147	-0.284
		(0.038)	(0.039)	(0.397)	(0.420)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236	0.252	2.527	2.744
		(0.030)***	(0.031)***	(0.291)***	(0.311)***
		0.469	0.534	4.781	5.618
		(0.053)***	(0.057)***	(0.485)***	(0.542)***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431	0.445	5.164	5.532
		(0.144)***	(0.171)***	(1.625)***	(1.955)***
		0.776	0.774	8.878	9.123
		(0.142)***	(0.168)***	(1.598)***	(1.920)***
	50세 미만	1.060	1.096	11.655	12.398
		(0.142)***	(0.168)***	(1.593)***	(1.915)***
		1.482	1.412	15.781	15.597
		(0.142)***	(0.170)***	(1.588)***	(1.929)***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431	0.478	4.222	4.830
		(0.032)***	(0.033)***	(0.299)***	(0.322)***
		-0.242	-0.197	-2.588	-2.118
		(0.042)***	(0.045)***	(0.436)***	(0.483)***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028	-0.081	0.287	-0.722
		(0.059)	(0.062)	(0.605)	(0.670)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332	0.304	3.722	3.474
		(0.061)***	(0.062)***	(0.649)***	(0.681)***
		-0.002	-0.027	0.283	-0.044
		(0.061)	(0.061)	(0.661)	(0.677)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283	0.209	3.109	2.405
		(0.039)***	(0.039)***	(0.413)***	(0.423)***
		0.427	0.387	4.605	4.295
		(0.044)***	(0.044)***	(0.449)***	(0.461)***
		0.655	0.522	6.988	5.780
	3분위	(0.047)***	(0.049)***	(0.473)***	(0.503)***
		1.012	0.877	10.535	9.534
		(0.051)***	(0.053)***	(0.494)***	(0.527)***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141	-0.042	-1.176	-0.288
		(0.060)**	(0.063)	(0.621)*	(0.683)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V.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보유현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득, 연령 등의 특성으로 가계를 구분하여 자산 세부 내역별로 전후 변화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특성에 따라 자산보유의 양극화가 심화 또는 축소되었는지, 특정한 특성을 가진 가계의 그룹에서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의 효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한 가운데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규모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보유자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과 거주 주택외 부동산 보유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고,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저축과 보험 보유액은 감소하는 가운데 현금 및 수시입출금식 저축, 펀드 및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리스크가 있는 금융자산, 전월세 보증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가 모든 가계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첫째, 연령대 중에서 젊은 층의 자산보유 성향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저축이나 보험의 보유성향은 다른 연령대와 차별화될 정도로 축소된 반면 대신 리스크 금융자산의 보유성향은 다른 연령대와 차별화될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면밀한 분석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리스크 금융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 미디어 등에 대두되면서 정부 당국은 코로나 기간 중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던 프로그램들을 정비함과 동시에 금융 차원에서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상이나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등의 금융상품을 지원하거나 지원

할 계획을 세웠다. 청년들의 최근 자산변화를 감안할 때 자산형성에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번에 금융당국에서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저축상품은 만기를 5년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이 3년 정도였고 일반적인 예금상품도 3년 이내였음을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인 적금상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복지 차원의 자산형성프로그램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될 때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배제하였지만 금번 은행들을 통해 진행된 청년희망기움이나 향후 진행될 청년도약계좌는 복지 차원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과거와는 차별화된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청년의 입장에서 이를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저축하면 자산형성을 위해 보다 많이, 보다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중복가입을 통해 보다 많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총 매칭 비율은 낮아지게 상품이 프로그램된 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나 참고자료에서 제시하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최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검토해 보고 향후 진행시 필요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코로나 발생 전후를 비교하였는데, 이 기간은 이미 복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상당히 강화한 기간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들에게 상당히 높은 매칭 비율을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하게 제공하였음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저축이나 보험의 보유성향은 크게 축소되고, 리스크 금융자산의 보유성향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매칭 비율을 낮추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층의 장기저축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득변수 등을 모두 통제하고도 젊은 층의 자산보유 성향이 유독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산형성 규모가 얼마인지,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자산형성 규모에 도달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등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과 금융 차원의 프로그램이 중복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면서 복지 차원과 금융 차원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갈 때 첫 번째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조정되는 방식보다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매칭 비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금융 차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교육이나 상담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복지 차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연계는 되어 있지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자활센터 등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역량이 높지 않으며 양적으로도 최근 청년층이나 차상위계층에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사례관리자의 규모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교육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관리상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만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크지도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교육과 상담의 성과를 통해 청년층이 저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동기와 지식을 넓혀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와 금융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전체적인 관리는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되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금융회사나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면 보다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득분위별로 볼 때 저소득층과 고소득의 보험 가입 성향의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하는 저축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더욱 차별화된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청년층에서만 보다 장기적인 자산형성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 자산형성사업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가계의 자산관점에서만 분석을 제공하였으며 자산과 함께 부채를 고려하여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도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가 부채를 보유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형성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사실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Help to Save의 가입 비중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채를 가진 빈곤층이 가진 여윗돈으로 부채를 갚는 대신 Help to Save에 가입할 만큼 큰 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품은 아니라는 평을 받기 때문이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타겟군이 부채를 보유한 가구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두고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을 중심으로 한 채무 관련 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자의 관점에서 두 사업의 적절성을 찾아줄 수 있는 노력도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순자산5분위 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분석결과

〈표 A1-1〉 저축 결정요인 분석

Dep: 저축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38 (0.014)***	-0.023 (0.015)	-0.217 (0.064)***	-0.197 (0.073)***
	수도권 여부[기준(Base): 수도권] 비수도권	-0.119 (0.023)***	-0.052 (0.023)**	-0.267 (0.105)**	-0.005 (0.118)
성별[기준: 남자]	여자	0.239 (0.035)***	0.246 (0.036)***	1.044 (0.166)***	1.262 (0.185)***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0.124 (0.028)***	0.075 (0.029)**	0.580 (0.129)***	0.365 (0.146)**
	대학원 졸업 이상	0.121 (0.055)**	0.136 (0.057)**	0.511932 (0.220)**	0.6464687 (0.253)**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506 (0.085)***	-0.170 (0.097)*	-2.167 (0.312)***	-1.105 (0.465)**
	50세 미만	-0.623 (0.084)***	-0.267 (0.096)***	-2.578 (0.313)***	-1.487 (0.464)***
	60세 미만	-0.773 (0.086)***	-0.304 (0.097)***	-3.020 (0.324)***	-1.535 (0.469)***
	60세 이상	-0.784 (0.088)***	-0.345 (0.099)***	-2.968 (0.340)***	-1.610 (0.483)***
중상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268 (0.031)***	-0.204 (0.032)***	-1.297 (0.144)***	-1.009 (0.162)***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130 (0.037)***	-0.159 (0.039)***	-0.600 (0.181)***	-0.825 (0.204)***
	기타(무직, 학생, 기사 등)	-0.248 (0.053)***	-0.259 (0.053)***	-1.071 (0.272)***	-1.263 (0.299)***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155 (0.052)***	0.057 (0.055)	0.341 (0.240)	0.055 (0.279)
	사별 혹은 이혼	0.002 (0.051)	-0.116 (0.052)**	-0.471 (0.245)*	-0.907 (0.275)***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284 (0.036)***	0.287 (0.036)***	1.751 (0.197)***	1.888 (0.214)***
	3분위	0.396 (0.040)***	0.409 (0.041)***	2.336 (0.213)***	2.557 (0.232)***
	4분위	0.487 (0.045)***	0.523 (0.047)***	2.784 (0.228)***	3.174 (0.253)***
	5분위	0.604 (0.052)***	0.605 (0.053)***	3.431 (0.251)***	3.731 (0.279)***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465 (0.034)***	0.437 (0.036)***	3.033 (0.184)***	3.027 (0.205)***
	3분위	0.682 (0.037)***	0.606 (0.038)***	4.394 (0.192)***	4.263 (0.211)***
	4분위	0.844 (0.040)***	0.747 (0.041)***	5.482 (0.200)***	5.227 (0.220)***
	5분위	0.962 (0.045)***	0.779 (0.045)***	6.477 (0.218)***	5.806 (0.239)***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080 (0.056)	-0.009 (0.055)	-0.355 (0.299)	0.047 (0.322)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A1-2〉 보험 결정요인 분석

Dep: 보험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06 (0.015)	0.005 (0.016)	0.056 (0.054)	0.043 (0.066)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295 (0.024)***	0.392 (0.024)***	1.189 (0.091)***	1.827 (0.112)***
성별[기준: 남자]	여자	0.177 (0.036)***	0.171 (0.036)***	0.746 (0.148)***	0.806 (0.170)***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0.030 (0.031)	0.002 (0.031)	-0.100 (0.109)	-0.015 (0.133)
	대학원 졸업 이상	-0.163 (0.058)***	-0.130 (0.059)**	-0.482 (0.197)**	-0.467 (0.248)*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081 (0.087)	0.363 (0.098)***	0.533 (0.379)	2.149 (0.540)***
	50세 미만	0.220 (0.087)**	0.586 (0.098)***	1.108 (0.377)***	3.204 (0.536)***
	60세 미만	0.095 (0.089)	0.544 (0.099)***	0.729 (0.382)*	3.053 (0.540)***
	60세 이상	-0.272 (0.091)***	0.124 (0.101)	-0.870 (0.394)**	1.104 (0.553)**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132 (0.034)***	-0.099 (0.034)***	-0.452 (0.114)***	-0.355 (0.141)**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099 (0.039)**	-0.109 (0.040)***	-0.348 (0.155)**	-0.474 (0.187)**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202 (0.055)***	-0.173 (0.054)***	-0.685 (0.239)***	-0.740 (0.267)***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245 (0.054)***	0.118 (0.056)**	1.111 (0.216)***	0.610 (0.255)**
	사별 혹은 이혼	0.072 (0.053)	0.022 (0.053)	0.240 (0.224)	0.022 (0.252)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419 (0.036)***	0.371 (0.037)***	2.354 (0.175)***	2.296 (0.199)***
	3분위	0.604 (0.042)***	0.501 (0.042)***	3.228 (0.190)***	2.949 (0.217)***
	4분위	0.734 (0.047)***	0.630 (0.048)***	3.667 (0.201)***	3.608 (0.235)***
	5분위	0.812 (0.055)***	0.726 (0.056)***	3.941 (0.219)***	4.029 (0.257)***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356 (0.035)***	0.357 (0.036)***	2.013 (0.163)***
	3분위	0.543 (0.038)***	0.541 (0.039)***	2.950 (0.166)***	3.176 (0.191)***
	4분위	0.746 (0.042)***	0.608 (0.042)***	3.791 (0.172)***	3.617 (0.202)***
	5분위	0.722 (0.047)***	0.667 (0.047)***	4.035 (0.190)***	4.025 (0.219)***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344 (0.058)***	-0.310 (0.056)***	-2.037 (0.269)***	-1.957 (0.295)***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A1-3〉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결정요인 분석

Dep: 펀드 및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86 (0,016)***	-0,051 (0,017)***	-0,832 (0,154)***	-0,457 (0,139)***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103 (0,027)***	0,055 (0,026)**	0,885 (0,255)***	0,441 (0,221)**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47 (0,044)	-0,041 (0,042)	0,418 (0,425)	-0,461 (0,362)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209 (0,032)***	0,274 (0,032)***	2,185 (0,310)***	2,497 (0,277)***
대학원 졸업 이하	0,274 (0,055)***	0,310 (0,056)***	2,831 (0,505)***	2,854 (0,447)***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095 (0,114)	-0,139 (0,099)	0,996 (1,137)	-1,398 (0,831)*
50세 미만	0,107 (0,114)	-0,342 (0,098)***	1,093 (1,128)	-2,914 (0,830)***
60세 미만	0,034 (0,115)	-0,412 (0,099)***	0,493 (1,138)	-3,442 (0,839)***
60세 이상	0,047 (0,118)	-0,546 (0,103)***	0,568 (1,166)	-4,650 (0,868)***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63 (0,034)*	-0,060 (0,035)*	-0,675 (0,330)**	-0,535 (0,295)*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317 (0,049)***	-0,216 (0,047)***	-3,100 (0,490)***	-1,894 (0,416)***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228 (0,072)***	-0,186 (0,064)***	-2,025 (0,715)***	-1,453 (0,560)***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084 (0,061)	-0,094 (0,060)	-0,986 (0,586)*	-1,120 (0,505)**
사별 혹은 이혼	-0,219 (0,062)***	-0,139 (0,059)**	-2,256 (0,603)***	-1,421 (0,511)***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052 (0,048)	0,076 (0,047)	-0,289 (0,482)	0,831 (0,432)*
3분위	0,019 (0,052)	0,133 (0,051)***	0,469 (0,516)	1,488 (0,458)***
4분위	0,151 (0,055)***	0,260 (0,055)***	1,858 (0,539)***	2,745 (0,491)***
5분위	0,332 (0,060)***	0,501 (0,060)***	3,584 (0,582)***	4,728 (0,528)***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466 (0,055)***	0,422 (0,050)***	4,837 (0,558)***	4,014 (0,449)***
3분위	0,692 (0,056)***	0,598 (0,050)***	7,180 (0,559)***	5,683 (0,449)***
4분위	0,961 (0,057)***	0,823 (0,052)***	9,949 (0,569)***	7,772 (0,458)***
5분위	1,307 (0,060)***	1,110 (0,056)***	13,436 (0,582)***	10,462 (0,479)***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163 (0,078)**	-0,199 (0,068)***	-1,553 (0,777)**	-1,738 (0,615)***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A1-4〉 전월세 보증금 결정요인 분석

Dep: 전월세 보증금		프러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89	-0.095	-0.607	-0.640
		(0.0158)***	(0.0176)***	(0.1234)***	(0.1330)***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0.626	-0.682	-4.998	-5.267
		(0.0256)***	(0.0274)***	(1.869)***	(1.888)***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05	-0.011	0.298	0.155
		-0.036	-0.0379	-0.2486	-0.2529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하	0.223	0.135	1.970	1.202
		(0.0321)***	(0.0339)***	(0.2434)***	(0.2455)***
	대학원 졸업 이하	0.290	0.286	2.933	2.529
		(0.0671)***	(0.0712)***	(0.5560)***	(0.5724)***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076	-0.152	0.272	0.303
		-0.0973	-0.1114	-0.521	-0.5055
	50세 미만	-0.213	-0.354	-1.0174*	-1.4173
		(0.0964)**	(0.1096)***	(0.5268)*	(0.5070)***
	60세 미만	-0.3395	-0.5005	-2.1439	-2.718
		(0.0977)***	(0.1100)***	(0.5447)***	(0.5195)***
	60세 이상	-0.7693	-0.9445	-5.3901	-5.9876
		(0.1010)***	(0.1130)***	(0.5832)***	(0.5564)***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173	0.0181	-0.168	-0.1148
		-0.0362	-0.0395	-0.2935	-0.3094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1273	0.1465	0.6889	0.8344
		(0.0404)***	(0.0427)***	(0.2878)**	(0.2921)***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1296	0.0337	0.8438	0.008
		(0.0577)**	-0.0603	(0.4040)**	-0.4022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0561	-0.0798	0.2802	0.056
		-0.0543	-0.0583	-0.3875	-0.4033
	사별 혹은 이혼	0.1097	0.027	1.4429	0.8455
		(0.0527)**	-0.0549	(0.3529)***	(0.3523)**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1677	0.1969	0.949	1.1553
		(0.0397)***	(0.0417)***	(0.2763)***	(0.2779)***
	3분위	0.2562	0.2611	1.8263	1.8192
		(0.0469)***	(0.0487)***	(0.3388)***	(0.3383)***
	4분위	0.187	0.2633	1.3879	1.9329
		(0.0522)***	(0.0550)***	(0.3949)***	(0.4047)***
	5분위	0.2366	0.3956	1.8317	3.1771
		(0.0607)***	(0.0643)***	(0.4848)***	(0.4902)***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7038	-0.7121	-3.6878	-3.5635
		(0.0355)***	(0.0373)***	(0.2342)***	(0.2303)***
	3분위	-1.3192	-1.366	-8.571	-8.5534
		(0.0411)***	(0.0431)***	(0.3010)***	(0.3037)***
	4분위	-1.6907	-1.7716	-11.9354	-12.1213
		(0.0477)***	(0.0500)***	(0.3585)***	(0.3632)***
	5분위	-1.7416	-1.9825	-12.2791	-13.8385
		(0.0532)***	(0.0572)***	(0.4060)***	(0.4178)***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1996	-0.0332	-1.3337	0.0127
		(0.0618)***	(0.0622)***	(0.4495)***	-0.4331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A1-5〉 거주 주택 결정요인 분석

Dep: 거주 주택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113 (0.016)***	0.110 (0.018)***	0.554 (0.068)***	0.552 (0.076)***
	수도권 여부[기준(Base): 수도권]				
	비수도권	0.551 (0.027)***	0.603 (0.028)***	2.026 (0.118)***	2.260 (0.127)***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27 (0.038)	0.016 (0.040)	-0.049 (0.186)	0.158 (0.196)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0.288 (0.034)***	-0.197 (0.035)***	-0.969 (0.140)***	-0.597 (0.147)***
	대학원 졸업 이상	-0.475 (0.062)***	-0.426 (0.064)***	-1.627 (0.280)***	-1.458 (0.295)***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309 (0.115)***	0.318 (0.134)**	2.5061 (0.724)***	2.719587 (0.867)***
	50세 미만	0.533 (0.114)***	0.575 (0.132)***	3.776155 (0.715)***	4.16657 (0.856)***
	60세 미만	0.670 (0.116)***	0.750 (0.133)***	4.287571 (0.718)***	4.871085 (0.856)***
	60세 이상	1.008 (0.119)***	1.107 (0.135)***	5.561774 (0.724)***	6.201446 (0.862)***
중상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052 (0.037)	-0.091 (0.040)**	-0.478 (0.154)***	-0.661 (0.168)***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071 (0.043)*	-0.135 (0.045)***	-0.286 (0.199)	-0.569 (0.210)***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116 (0.061)*	-0.066 (0.061)	-0.509 (0.284)*	-0.288 (0.280)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048 (0.057)	0.101 (0.060)*	0.743 (0.299)**	0.915 (0.312)***
	사별 혹은 이혼	-0.094 (0.056)*	-0.062 (0.057)	0.216 (0.304)	0.347 (0.308)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118 (0.042)***	-0.166 (0.042)***	-0.634 (0.183)***	-0.829 (0.184)***
	3분위	-0.205 (0.049)***	-0.213 (0.048)***	-0.957 (0.211)***	-1.011 (0.205)***
	4분위	-0.144 (0.053)***	-0.258 (0.054)***	-0.639 (0.226)***	-1.115 (0.227)***
	5분위	-0.193 (0.062)***	-0.378 (0.064)***	-0.774 (0.257)***	-1.567 (0.263)***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1.416 (0.041)***	1.421 (0.043)***	9.195 (0.237)***	9.234 (0.247)***
	3분위	2.121 (0.046)***	2.119 (0.048)***	12.997 (0.233)***	13.056 (0.245)***
	4분위	2.476 (0.052)***	2.550 (0.055)***	14.595 (0.241)***	15.158 (0.252)***
	5분위	2.574 (0.058)***	2.771 (0.062)***	15.439 (0.258)***	16.552 (0.273)***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120 (0.064)*	-0.002 (0.063)	0.673 (0.285)**	0.163 (0.275)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표 A1-6〉 거주 주택의 부동산 결정요인 분석

Dep: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프로빗모델		토빗모델	
		2019	2021	2019	2021
	가구원수	-0.025 (0.016)	-0.062 (0.017)***	-0.171 (0.125)	-0.507 (0.146)***
	수도권 여부[기준: 수도권] 비수도권	0.457 (0.027)***	0.536 (0.028)***	3.461 (0.220)***	4.427 (0.244)***
성별[기준: 남자]	여자	0.030 (0.043)	-0.089 (0.042)**	0.350 (0.364)	-0.741 (0.386)*
교육정도[기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0.001 (0.033)	0.042 (0.034)	0.151 (0.264)	0.449 (0.293)
	대학원 졸업 이상	0.131 (0.059)**	0.255 (0.061)***	1.300 (0.442)***	2.361 (0.491)***
연령[기준: 30세 미만]	40세 미만	0.174 (0.149)	0.149 (0.195)	2.000 (1.404)	1.948 (1.908)
	50세 미만	0.371 (0.147)**	0.333 (0.192)*	3.815 (1.383)***	3.674 (1.875)*
	60세 미만	0.603 (0.147)***	0.609 (0.192)***	5.669 (1.381)***	6.019 (1.873)***
	60세 이상	0.839 (0.148)***	0.789 (0.194)***	7.456 (1.386)***	7.471 (1.888)***
종사상 지위[기준: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0.347 (0.035)***	0.404 (0.035)***	2.743 (0.270)***	3.390 (0.294)***
	임시, 일용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0.090 (0.047)*	-0.059 (0.050)	-0.734 (0.396)*	-0.437 (0.453)
	기타(무직, 학생, 가사 등)	0.073 (0.063)	-0.096 (0.065)	0.672 (0.522)	-0.733 (0.587)
혼인상태[기준: 미혼]	기혼	0.159 (0.066)**	0.106 (0.070)	1.544 (0.584)***	1.043 (0.652)
	사별 혹은 이혼	0.070 (0.066)	0.048 (0.067)	0.897 (0.588)	0.650 (0.629)
소득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054 (0.043)	-0.073 (0.042)*	-0.466 (0.360)	-0.612 (0.377)
	3분위	-0.082 (0.047)*	-0.040 (0.048)	-0.834 (0.388)**	-0.418 (0.416)
	4분위	-0.037 (0.051)	-0.100 (0.053)*	-0.391 (0.419)	-0.921 (0.461)**
	5분위	-0.021 (0.058)	-0.004 (0.059)	-0.132 (0.467)	0.034 (0.509)
순자산 5분위[기준: 1분위]	2분위	0.812 (0.058)***	0.893 (0.056)***	8.008 (0.547)***	9.109 (0.552)***
	3분위	1.271 (0.061)***	1.339 (0.057)***	12.475 (0.555)***	13.541 (0.546)***
	4분위	1.782 (0.063)***	1.764 (0.059)***	17.089 (0.557)***	17.582 (0.548)***
	5분위	2.470 (0.068)***	2.357 (0.064)***	22.602 (0.566)***	22.892 (0.559)***
은퇴 여부[기준: 은퇴하지 않음]	은퇴	-0.327 (0.064)***	-0.167 (0.066)**	-2.481 (0.531)***	-1.306 (0.594)**

주 : * p<0.1, ** p<0.05, ***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

〈참고자료 2〉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 사업 개요

1. 국내 주요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진출 시 초기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여 주교자 하는 목적으로 디딤돌씨앗통장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통장에서는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등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아동이 적립을 하면 국가(지자체)가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이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만 24세까지는 학자금, 기술취득,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등을 지원하는 자립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만 24세에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료되게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다수 도입되었다. 우선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희망키움통장(I)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통장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4년에는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시행되어 대상이 확대되었다.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의 경우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기준중위소득 40%×60%)]×0.85로 매칭하여 추가 적립하여 주는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소득의 하한수준(기준중위소득 40%×60%)이 6개월 이상 미달되지 않고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그리고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데, 소득의 하한수준(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수준)을 3년간 유지하면서 저축하고 연 각 2회 이상씩 교육과 사례관리를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그리고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저소득근로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시행되었다. 특히 근로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보다 탈수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상대적으로 높은 매칭 비율을 적용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저축계좌사업도 시행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자활근로사업단⁶⁾에서 성실히 근로활동을 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도입되었다. 가입자는 매월 5만, 10만, 2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는데 이에 매칭되어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저축액의 1:1), 내일키움장려금(사업의 종류에 따라 1:1 또는 1:0.5⁷⁾),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원을 한도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0%)이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하거나,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대학교로 복학 또는 입학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 저축액과 적립금, 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6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계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7 1:1로 적립되는 사업: 시장 진입형, 예비자활기업형, 시간제 자활근로형,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형, 1:0.5로 적립되는 사업: 수익형 사회서비스형

〈표 A2-1〉 저소득층 지원 5개 통장사업 세부내용(21년 통장사업 통합전)

구 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단위	가구	가구	개인	개인	개인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15~39세)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15~39세)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	월 5만/10만원	월 10만원	월 5만/10만/20만원	본인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월 10만원
정부 지원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40%×60%)]×0.85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또는 1:0.5 매칭	총년총소득×0.45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추가지원 (월 평균 23만원)	민간 매칭금 (월 최대 2만원)	-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그런데 이처럼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사업이 과다하게 복잡하여졌다는 평가하에 이를 보다 단순화하는 작업이 2021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별도 사업에서 제외하고 청년관련 자산형성사업을 통합하여 현재 5개의 통장사업을 3개로 전환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장사업을 희망저축 I, 희망저축 II, 청년 내일저축계좌로 구분하였는데, 희망저축 I 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3으로 30만 원까지 매칭하여 주는 사업으로 단순화하고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게 설계하였다.

그리고 희망저축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1:1로 10만 원까지 매칭하여 주는데 정해진 교육과 사례관리를 모두 이수하고 지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200만 원 이하(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월 50만 원 이하도 신청가능)으로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1:1(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또는 1:3(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표 A2-2〉 저소득층 지원 21년 통합된 통장사업

구 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단위	가구	가구	개인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일하는 만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만19~34세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 지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및 기타지원금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심화사례관리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전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하였다. 나아가 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내일키움장려금이나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⁸⁾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이에 해당되는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⁹⁾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월 일정 금액 이하(현재 세전 월 소득이 255만 원 이하) 이고 부모 및 배우자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각각 1:1로 추가 적립하여 주는 사업이다. 저축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참가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 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등이 요구되고 있다.

꿈나래통장은 서울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로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가 가입대상으로 약정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다. 저축방식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로 구분하여 혜택을 차별화하였는데 본인 저축액의 경우 월 5만·7만·10만 원 중 선택(다만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로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2만 원

8 탈수급장려금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보다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재원을 지원하여 마련된 민간매칭금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만원씩 36개월 적립시 최대 72만원으로 본인 저축시 매월 매칭하여 적립되고 탈수급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9 중복지원을 회피하고자 상기한 보건복지부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능)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에게는 본인 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하도록 설계하였다. 저축목적은 가입 신청 시 지정한 참가 아동 대상 자녀 교육비이며 참가자의 의무사항으로는 적립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 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적립 기간 동안 참가 아동 양육 이행 등을 요구하였다.

이름통장은 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심한 만 15세~만 39세 장애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3년 동안 월 10만·15만·20만 원 중 선택하여 저축하면 월 15만 원씩 적립하여 주는 사업이다. 교육, 주거 등을 위한 자립준비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자산용도가 저축의 구체적인 목적이며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 기간 동안 13회 이상 저축, 적립 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등이 의무요구사항이다.

그 밖의 다양한 지자체들도 특히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월 10만 원 저축시 경기도가 매월 14만2천 원을 지원하는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을 시행 중이고 부산시는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설정하여 18개월,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약정하여 저축하면 부산시가 이에 대응하여 1:1로 적립해 주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이다. 저축목적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학자금, 전세보증금) 등이며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을 연 1회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도 유사하게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이다.¹⁰⁾

10 복지당국과 지자체 외에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 유인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의 장기

그리고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외에 2022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을 한 경우 최대 6년 동안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의 지원과 함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금융업권에서 출시되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되 만기 2년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 저축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를 추가로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해당 상품이 큰 이슈가 된 데에는 상기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을 허용하였다.

나아가 보다 고소득청년인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은 없이 3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¹¹⁾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키움공제도 있다. 이는 5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주는 제도이다.

- 11 기존에 청년형 ISA가 있었는데 이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15~29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한도로 3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부과하는 상품이다. 다만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부과한다.

〈표 A2-3〉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상품 운용현황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은행명	우대금리	주요 은행별 청년희망적금 운영조건
<p>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총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 원 이하</p> <p>적금방식 : 월 최대 50만 원 이하 자유적립식 가입기간: 2년</p> <p>혜택 : 납입금액에 대해 1차 연도 2%(최대 12만 원), 2차 연도 4%(최대 24만 원), 최대 총 36만 원 저축장려금 만기일시 지급식</p> <p>기타 : 1인 1계좌</p>	KB 국민	최대 연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 월 합산금액 50만원 이상”인 월이 6개월이상인 경우(연0.5%p) ·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청약관련상품 제외)(연0.5%p)
	신한	최대 연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받은 경우 (연0.2%p) · 머니버스(메타버스 서비스)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연0.3%p) · 소득이체 실적(50만 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연0.5%p) · 상품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연0.5%p)
	NH 농협	최대 연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월 이상 급여이체실적(연0.5%p) · 은행 발급 NH농협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20만 원 이상 허용(연0.2%p) · 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주택청약 포함)이 없었던 경우(연0.3%p)
	IBK 기업	최대 연 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연0.3%p) · 급여이체 실적(월 50만 원 이상)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연0.3%p) · 신용(체크)카드 3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연 0.3%p)
	하나	최대 연 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주거래이체(연0.2%p), 신용카드결제실적(연0.2%p), 청약 신규 및 보유(연0.2%p), 마케팅 동의(연0.1%p)
	우리	최대 연 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입출금 제외) 및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등(연0.5%p), 3월 31일까지 적기 가입 시(연0.2%p)

자료 : 서울경제신문(2022)

그리고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내년에는 국제과제로 진행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신규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지원금이 제공될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납입액 40만~70만원을 5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하여 지원하여 주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3〉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 해외사례

자산형성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사회사업학 교수인 Sherraden(1991)이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과 개인개발계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Sherraden(1991)은 우선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자산은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자금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대를 거쳐 경제적 상태를 물려줄 수 있는 계층이동수단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량 및 사회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계층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자산은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키면서도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형성한 자산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적자본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성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개개인이 자신들에게 닥치는 위기를 완화하고 인적자본 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면 이는 전체적인 사회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한 평가와 함께 Sherraden(1991)은 개인의 선호 및 이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저축보다는 금융 및 사회 정책 등의 제도가 개인에게 저축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회에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제도적 요소를 저축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를 통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저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일환으로 제안된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는 참여 가구가 저축 계좌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고정/변동)을 저축하면 정부·민간매칭금을 지원기준(매칭 비율)에 따라 함께 적립한 후, 사업 참여 종료 시점까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개인발달계좌가 실제로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초기 도입 사례를 보면 Sherraden이 처음 개념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에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시작되었고 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상이나 저축의 용도 등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발달계좌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개인발달계좌의 경우 대체로 미국 소득의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자동차, 다른 저축 등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낮은 신용이나 과도한 부채 수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은 6개월에 서부터 3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저축액에 대한 매칭 비율은 1:1에서부터 9:1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1이나 2:1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저축 용도는 주택 구입, 교육학자금, 소규모 창업 등이다. 각 주마다 재원은 연방정부, 주 정부 및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기부금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에는 각종 재단, 은행, 일반기업,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 주체는 각 주의 관련된 단체나 재단이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대상을 모집하여 계좌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된 교육이나 카운셀링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의 경우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외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축의 용도가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 주택수리비, 장애 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저축의 용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시기에 필요한 저축 용도로 모기지상환 용도도 나타난 바 있다. 주택 구입은 가계입장에서는 부채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보유하게 하는데 이 부채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에 비영리단체인 Prosperity.now는 2017년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부채가 상당히 존재하는 만큼 큰 금액을 목표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약 1~3개월 정도의 모기지상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저축하고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비영리 주택 관련 단체인 뉴멕시코의 Homewise와 포틀랜드의 Portland Housing Center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서 제공하는 재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완료하고 200달러를 저축하여 예금명세서를 제출하면 1:1로 200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하였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완료하는 데에는 평균 90일 정도를 소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의 90%가 해당 교육프로그램이 저축을 시작하여 계속해서 저축을 하도록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한편 아동발달계좌의 경우에도 개인발달계좌와 유사하게 일정 금액 이하로 아동의 계좌에 저축하면 이에 매칭되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다양한 지원사회 기반의 단체들과 협업하여 사업이 진행되며 해당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계좌를 만들어 대략 18세 정도까지 소액의 저축을 하도록 유인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한편 개인발달계좌와는 다르게 아동발달계좌의 경우 아동을 위한 장기저축을 마련하여 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을 위한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이 느슨한 경우가 많다. 다만 가입은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더라도 매칭되는 금액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보다 높은 비율로 매칭되도록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발달계좌와 아동발달계좌 모두 연방정부적인 측면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주택구입, 교육비, 소규모 창업 등 저축의 용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저축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저축의 적절한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기간과 본인의 저축액, 그리고 이에 매칭되는 금액의 비율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주택 구입에 대하여 매칭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매칭 비율을 높임으로써 역진성을 가지도록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형성된 자산을 바탕으로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련 기관이 운영하면서 자산형성사업의 참여자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저축의 용도에 따라 그 용도에 맞는 전문적인 기관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이나 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재무교육의 경우에도 연방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청 등이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중앙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자산형성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영국은 1990년대 말 자산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가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 Saving Gateway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첫 번째 파일럿프로그램은 2002년에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한해 소득이 11,000파운드(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인 경우 15,000파운드)인 근로 가구나 구직수당이나 생활수급, 장애 수당 등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18개월을 만기로 저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저축의 한도는 월 25파운드(18개월 동안 375파운드)로 하여 정부가 1:1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Saving Gateway 프로그램을 Community Finance and Learning Initiativ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pilot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들 기관은 금융역량 강화, 소기업 관련 서비스, 성인 교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모집하는 한편 계좌개설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Saving Gateway의 두 번째 파일럿프로그램은 2005년에 시행되었는데 대상은 개인기준으로 한해 소득이 25,000파운드 이하인 근로 가능 개인 및 50,000파운드 이하인 가구나 구직수당이나 생활수급, 장애 수당 등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만기는 동일하게 18개월로 진행되었는데 저축액은 25파운드에서 125파운드까지 다양하게 확대(18개월 동안 375파운드에서 2,000파운드)하였고 지역별 프로그램에 따라 매칭 비율도 1:0.2에서 1:1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대상자를 무작위전화 및 무작위

우편 등으로 선정하였고 참여자에게는 무료로 금융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하면 저축의 용도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처럼 보이지만 파일럿프로그램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시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행 당시 우려들을 보면 개인들이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대출로 저축을 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저축을 하며 매칭지원금만을 챙기거나, 정부 매칭금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 등이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의 평균 저축액이 기존 8.85 파운드에서 16.14파운드로 2배 정도 확대되었고, 참여 당시에는 참여자 중 17%만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였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는 80% 정도가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이 생긴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참여 당시에 대부분 저축액이 실제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자의 56%가 저축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잔고가 200파운드 이하가 13%, 200파운드에서 500파운드는 14%였으며, 17% 만이 잔고가 500파운드 이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채로 저축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3% 정도가 친구나 친지에게 빌려서 저축을 한 경험이 있고 단지 0.5% 만이 상업적으로 대출을 받아 저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 5%만이 다른 저축 계좌에서 Saving Gateway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94% 정도가 자신들의 정기적인 소득에서 저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국 사례를 기반으로 Sodha(2006)는 사업의 대상, 저축 규모 상한 및 매칭 비율 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저소득 근로계층으로 상업적으로는 신용을 받을 여유가 없고 친구나 친지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집중하여 이들이 저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과 이들의 이러한 저축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매칭 비율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러한 두 파일럿프로그램이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대신 2018년부터 새로운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Help to Save 사업이

시행되었다. 대상은 Working Tax Credit이나 Universal Credit을 받는 저소득근로자로 4년 동안 월 50파운드까지 자유롭게 적립하면 저축액의 50%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었는데 매월 적립하는 방식은 아니며 저축 후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매칭하여 주는 형식으로 설계하였다. 저축의 용도를 한정하지 않았으며 금융교육 등의 의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적절한 대상이 적절한 수준의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자산형성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우 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적고 신용을 보유할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가운데 가능한 자율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 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
도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 2022.8.30.
- 손은경·강민석, 30주년을 맞이하는 KB 부동산통계의 이해, Focus issu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6-10-13
- 송윤아, “가계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호도 분석” Kiri 리포트 포커스,
2022-4-18n 유현욱, 연 10% 파격 이자 주는데...석달새 17만명
해지 무슨일?, 서울경제신문 기사, (2022.10.11.일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B5Q58YS>
- 조규형·강소량·한창근·강시은, 2019,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 2019-021
- 최현수·오미애·서광국·한창근·김예슬·전지수,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 최현수·한창근·최준영, “탈수급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모니
터링 및 평가연구 - 2차(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1-107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1
- Agava, Pamela, Kate Davidoff, Doug Ryan, “MORTGAGE RESERVE
ACCOUNTS”, Prosperity Now, 2020, February
- Arrondel, L. et al. (2016), “How do households allocate their assets?
Stylised facts from the 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Vol. 12 No. 2 June 2016 pp 129-220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nd Banks: A Solid “Match”, FDIC QUARTERLY 2007, VOLUME 1, NO.1 p22-31
- Gomes, Francisco, Michael Haliassos, and Tarun Ramadorai, Household Fin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1, 59(3), 919-1000, <https://doi.org/10.1257/jel.20201461>
- OCC (2005),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An Asset Building Product for Lower-Income Consumers, www.occ.treas.gov, February.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New York: M.E. Sharpe
- Sherraden, M. (2002).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Summary of research (CSD Report No. 02-16).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DOI: <https://doi.org/10.7936/K7M61JRR>
- Sherraden, M., & Stevens, J. (Eds.). (2010). *Lessons from SEED: A national demonstration of Child Development Accounts* (CSD Research Report No. 10-35). St. Louis, MO: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 Sodha, S. and Lister, R. (2006), *The Saving Gateway: From Principles to Practice*, London: Institute of Public Policy Research
- Stuczynski, Amy, Em Vandrer, Neighborhood Partnerships, “Oregon IDA Initiative: Improving Oregonians’ Financial Resiliency”, Oregon IDA Initiative, 2018, January

한국금융연구원(KIF) 발간물 현황

1. 정기 간행물

■ 격주간

- 금융브리프

■ 계 간

- 계간금융동향
- 금융연구

■ 연 3회간

- 한국경제의 분석
- 경제전망시리즈

2. 연구 발간물

■ KIF 연구총서

- 2022-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공사연금 - 공사연금 체계와 금융시장의 역할-, 2022.4./김병덕
- 2021-03 비은행금융산업의 2030비전과 발전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2021.7./이재연·구정환·이규복
- 2021-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금융투자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2./송민규·연태훈
- 2021-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1.1./김재현·이석호
- 2020-02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은행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1./서정호·이병윤
- 2020-01 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2020.10./구본성·이순호
- 2017-01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및 대출 상품의 설계, 2017.3./송민규·노형식·박중상·박춘성·이보미·임 진
- 2014-01 우리나라의 매크로레버리지 : 분석과 전망, 2014.7./구본성·김동환·박혜식·이명환·박성욱·김영도·임 진·박중상·김석기·송민기

■ KIF 연구보고서

- 2022-04 대형 베이지안 VAR 모형을 활용한 경제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2022.12./박춘성·박성욱
- 2022-03 통화정책 목표로서 고용안정의 유효성, 2022.12./장민
- 2022-02 국내 스펙(SPAC)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2022.12./박혜식·김남중
- 2022-01 한국의 경기변동회계 : 주요 경기침체 시기별 특징과 시사점, 2022.7./김현태·박춘성
- 2021-08 저성장·디지털 시대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규제, 2021.12./김동환
- 2021-07 공매도와 주식시장의 이해현상, 2021.12./김근수·박혜식

- 2021-06 외부충격 시 계열회사 부실화에 따른 그룹위험 연구 - 출자연계성을 중심으로, 2021.12./오태록·이지언
- 2021-05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2021.12./송민규
- 2021-04 국내 보험사의 외화유가증권 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21.8./박해식·이석호
- 2021-03 팬데믹 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 추정, 2021.8./권홍진·박춘성·오태록
- 2021-02 공모·상장리츠 M&A 자금조달방식 결정요인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아태지역 상장리츠 실증분석 -, 2021.2./신용상
- 2021-01 국내은행의 효율성과 시사점, 2021.1./이지언·이대기
- 2020-05 OECD 회원국 은행그룹의 PBR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20.8./권홍진·서병호
- 2020-04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효율성 영향 분석 : Bootstrap DEA와 Stochastic Frontier Analysis를 중심으로, 2020.7./이석호
- 2020-03 투자자 정보, 기술적 분석 및 유전자 알고리즘(GA)에 기반한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20.6./김병덕
- 2020-02 거주자 외화예금과 외환시장 안정성, 2020.2./송치영·박해식
- 2020-01 국내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 검증 : 사건연구를 중심으로, 2020.1./박해식·김남중
- 2019-04 금융 마찰과 기업 규모별 정책, 2019.12./김석기
- 2019-03 가계대출 안내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 핵심상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11./김정환·노형식·서병호
- 2019-02 연령 프레임 효과로 인한 취업자 증감 지표의 착시 현상, 2019.7./송민기
- 2019-01 G-SIB CDS 프리미엄을 이용한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측정, 2019.4./이궁희·이명환
- 2018-07 자본시장을 통한 유동화 방식의 역모기지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8.12./김영도·신용상
- 2018-06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의 종합적 효과 분석, 2018.11./이석호·이순호
- 2018-05 예대율 규제 of 거시건전성 효과와 시사점 :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효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18.8./김남중
- 2018-04 저축은행의 경쟁과 위험추구, 2018.8./연태훈
- 2018-03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가 외환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7./박성욱
- 2018-02 소비자의 대학진학 및 학자금대출 선택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2018.4./김병덕
- 2018-01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동적특성 : 그룹별 대출 및 연체 추세에 대한 미시분석, 2018.3./박춘성·이보미
- 2017-17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2017.12./박해식·이지언
- 2017-16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주택연금 시스템 지속성 확보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7.8./신용상
- 2017-15 최근 구조조정 이후 우리나라 저축은행 특성별 대출포트폴리오 분석 및 시사점, 2017.8./이수진·이규복
- 2017-14 기업집단의 출자·부채구조와 사업재편에 관한 연구, 2017.6./김동환
- 2017-13 증권업의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시사점, 2017.6./이지언
- 2017-12 자산가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2017.5./김영도
- 2017-11 금융실효환율과 대외포지션 및 자본유출입의 관계 분석, 2017.4./김소영·이윤석
- 2017-10 국내가구의 교육 및 주거관련 비용 부담이 노후소득 준비에 미치는 영향 :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2017.4./이규복·이석호
- 2017-09 Determinants of SME Growth : Korean Manufacturing Firms, 2017.3./박창균·임형준
- 2017-08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17.3./김병덕

- 2017-07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 2017.2./지만수
- 2017-06 은행그룹의 비용구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2./김우진·이대기
- 2017-05 Population Aging and Monetary Policy in a New-Keynesian OLG Model, 2017.2./김석기
- 2017-04 금융상품 자본업 도입에 따른 판매채널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2017.2./구성한·이규복
- 2017-03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목표, 2017.1./박종규
- 2017-02 금융지주회사의 비예금부채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17.1./김자봉·이규복
- 2017-01 미소금융의 효율성 분석과 상품 개선 방안 -원가금리 추정과 대출금리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2017.1./이대기
- 2016-04 주택자산의 금융상품화 방안 연구 -금융기관 인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2016.11./신용상·김영도
- 2016-03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약제장 가설 재조명, 2016.11./박해식·송치영
- 2016-02 한국 자본이동관리규제의 영향 분석, 2016.2./박성욱·송민기
- 2016-01 국제만기에 관한 연구 : 기간스프레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16.1./박종상·송민규
- 2015-04 평균 수명 증가 연령별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고령층을 중심으로, 2015.9./김석기·임진
- 2015-03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 2015.3./이지연
- 2015-02 기술력평가정보를 활용한 기술 중소기업 부도예측과 정책적 활용방안, 2015.2./박창균·임형준
- 2015-01 저성장·고령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15.1./이석호
- 2014-05 국내 지역금융의 변화 추이와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12./손상호·이재연
- 2014-04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14.11./김우진
- 2014-03 국내은행의 대손비용 분석 및 시사점, 2014.9./서병호
- 2014-02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14.9./노형식·임진
- 2014-01 금융소비자보호 효과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규제, 사후관리, 역량강화, 2014.7./노형식·송민규·연태훈·임형준
- 2013-08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2013.12./박종규
- 2013-07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른 생명보험사의 비용절감(가격인하) 효과 : DEA 비용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2013.12./이석호
- 2013-06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13.12./김영도·서병호
- 2013-05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10./김영도
- 2013-04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국내 및 해외 포트폴리오투자 행태변화 및 시사점, 2013.9./박성욱·이규복
- 2013-03 정보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 정보전달 속도, 2013.5./박재윤·이충열·강임호·이선호
- 2013-02 주가지수 편입의 효과 : KOSPI 200을 중심으로, 2013.2./연태훈
- 2013-01 증권시장 수익률 및 변동성의 전이현상에 관한 연구, 2013.1./강종만
- 2012-05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은행수익성 및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2.8./한상섭·이병윤
- 2012-04 한국 금융시스템의 비교제도분석 : 은행 vs 시장, 2012.7./김동환
- 2012-03 최초공모주식의 저평가 여부와 장기성과의 변화 : 기업공개제도 개선효과에 주는 시사점, 2012.6./강종만
- 2012-02 회사채 유동성 프리미엄 분석 및 시사점, 2012.3./이규복·임형준
- 2012-01 중소기업 신용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신용보증과 신용보험의 역할 비교분석, 2012.2./김자봉·이석호

- 2011-05 우리나라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방식과 외화유동성 위험, 2011.12./이병윤·이윤석
- 2011-04 캐리거래와 우리나라 외환시장, 2011.12./박해식·송민규
- 2011-03 스트레스테스트에 기초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분석, 2011.8./신용상
- 2011-02 국내은행 업무 다변화의 성과분석, 2011.6./서병호·강종만
- 2011-01 해외주식투자 환헤지에 대한 연구, 2011.1./임형준
- 2010-07 시스템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규제자본금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10.12./김자봉·김병덕
- 2010-06 콜시장의 지준시장화에 따른 콜금리 움직임 분석, 2010.11./임형석
- 2010-05 금융불안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개선방안 연구, 2010.10./장 민·이규복
- 2010-04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2010.10./이지언
- 2010-03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2010.10./김정환·이대기
- 2010-02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2010.10./강종만·김영도
- 2010-01 국내외 은행의 CDS프리미엄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2010.10./서병호·이윤석

■ KIF 분석보고서

- 2023-02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23.1./이규복
- 2023-01 위기시 정책대응과 국내 은행의 성과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 vs 코로나 19 위기, 2022.12./김영도
- 2022-08 한국경제의 복합위기 가능성과 금융안전망, 2022.12./김동환
- 2022-07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과 민간의 화폐발행, 2022.12./이명환
- 2022-06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의 개념과 추진방안, 2022.12./이병윤·이윤석
- 2022-05 정리계획과 자본규제의 연계성 제고 방안, 2022.12./구본성·김우진·이대기
- 2022-04 경기 전환점 예측 모형 개발, 2022.12./김석기
- 2022-03 탄소중립 정책의 국내은행 영향 및 대응방안, 2022.12./이병윤·이시연
- 2022-02 채무조정 실효율 분석과 시사점, 2022.12./임형석
- 2022-01 거시 충격에 대한 연체를 스트레스 테스트, 2022.10./이지언

■ KIF VIP 리포트(구) KIF 금융분석리포트

- 2021-06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2021.11./최홍식·구본성
- 202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 2021.5./구정환·이규복·오테록
- 2021-04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1.3./구본성·권홍진·김우진·서병호
- 2021-03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2021.3./구정환·이규복
- 2021-02 BigTech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이슈와 정책적 논의, 2021.2./구본성
- 2021-0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21.2./김병덕
- 2020-18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2020.12./장 민
- 2020-17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2020.12./이보미
- 2020-16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2020.12./김동환·임형석
- 2020-15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은행의 대응, 2020.11./이병윤·서병호·권홍진
- 2020-14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의 은행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향, 2020.11./구본성·이대기
- 2020-13 글로벌 금융 불안과 우리나라 주가의 연계성, 2020.11./이명환
- 2020-12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리스크 :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중심으로, 2020.10./박해식·김현태

- 2020-11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산업별 재무건전성 점검, 2020.9./이보미
- 2020-10 크레딧시장 내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와 금융시장 감독 관련 시사점, 2020.8./ 임형준
- 2020-09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2020.7./박성욱
- 2020-08 우리나라 금융시장 변동요인 분석, 2020.6./김남중·박성욱·박춘성
- 2020-07 제로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리스크와 대응과제, 2020.5./송민규·구본성·구정환·박성욱·박춘성·이대기·이석호·임진
- 2020-06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시사점, 2020.4./임진
- 2020-05 국내 부동산신탁업의 구조와 발전과제, 2020.3./서정호
- 2020-04 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2020.2./구정환·이규복
- 2020-03 2020년 은행산업 전망과 과제, 2020.2./이대기·김우진·권홍진
- 2020-02 글로벌 교역 동향과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 2020.2./김정환
- 2020-01 일반투자자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상장형 부동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공모형 리츠 및 부동산 DABS 거래소를 중심으로 -, 2020.1./신용상
- 2019-16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2019.12./장민
- 2019-15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 2019.12./이병윤·이순호
- 2019-14 IPO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2019.12./이보미
- 2019-1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2019.12./이병환
- 2019-12 북한 금융의 주요 과제와 베트남 금융개혁의 시사점, 2019.11./박해식·이병윤
- 2019-11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10./김병덕
- 2019-10 금융거래지표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과제, 2019.9./김남중·송민규
- 2019-09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실업에 미치는 영향, 2019.6./장민
- 2019-08 레버리지론 및 CLO 시장의 위험과 시사점, 2019.5./박해식·오탈록
- 2019-07 국내 자영업자의 부채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2019.3./서정호·이규복·이기혁
- 2019-06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2019.3./서정호·김자봉
- 2019-05 국내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과 업권별 리스크 관리방안, 2019.2./신용상
- 2019-04 지역중심 성장모델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시사점, 2019.2./구본성
- 2019-03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부진 원인과 개선방안, 2019.2./구정환
- 2019-02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전략 분석, 2019.1./김병덕
- 2019-01 국내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검토, 2019.1./김영도
- 2018-08 오픈API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은행산업의 혁신전략, 2018.12./서정호
- 2018-07 ICO 현황과 규제방안 -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 2018.11./이지언·이보미
- 2018-06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2018.10./박해식·김남중·오탈록
- 2018-05 신남방정책과 국내은행의 아세안 진출, 2018.10./김정환·서병호
- 2018-04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2018.9./박해식·이윤석
- 2018-03 국내 증권사의 IB 업무현황 및 시사점 : 은행계열 IB 분석을 포함하여, 2018.8./구본성
- 2018-02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가계부채 금리위험 완화 방안 : MBS와 커버드본드의 활용, 2018.8./김영도
- 2018-01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제고, 2018.7./구본성
- 2015-01 글로벌 100대 은행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2015.4./김우진·이수진
- 2014-13 중국 은행시장의 지역별 특성과 진출환경, 2014.12./지만수
- 2014-12 영국 서민지원 주택금융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2014.9./강종만
- 2014-11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2014.9./김자봉
- 2014-10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방안, 2014.8./박성욱·지만수·송민기
- 2014-09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2014.8./김우진

- 2014-08 G-SIBs 규제 영향과 시사점, 2014.7./임형석
- 2014-07 RP 시장 선진화를 통한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지원방안, 2014.6./김영도
- 2014-06 거시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해외채권투자의 활성화, 2014.5./구본성·임형준
- 2014-05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2014.4./노형식·이순호
- 2014-04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역할, 2014.4./이지언·최공필
- 2014-03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고찰, 2014.3./박성욱·박종상
- 2014-02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배경과 전망, 2014.2./박성욱·송민기
- 2014-01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의 통합필요성 및 유인부합적 시행방안, 2014.1./김병덕
- 2013-10 일본의 고령화 대책, 2013.11./김동환
- 2013-09 금융거래세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13.7./김정한·박성욱·박종상
- 2013-08 최근 양적완화 정책의 역사적 고찰 : 대공황기 주요국 평가절하 사례를 중심으로, 2013.7./이명환
- 2013-07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 2013.5./서정호·구본성
- 2013-06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소득·자산 구조와 시사점, 2013.5./박해식·임 진
- 2013-05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2013.4./송민규·임형준
- 2013-04 ETF 관련 주요 이슈 및 발전 방향, 2013.4./김영도·송민규·연태훈·임형준
- 2013-03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 반, 2013.3./김영도·임 진
- 2013-02 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2013.1./구본성·김정한·이명환·노형식·임 진
- 2013-01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의 부작용 점검 :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3.1./박해식·박성욱
- 2012-09 국내은행의 PB 비즈니스 발전방안, 2012.12./서병호·김우진
- 2012-08 학자금대출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2012.7./강종만
- 2012-07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2012.7./박해식·박성욱
- 2012-06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2012.5./이윤석
- 2012-05 신용상당기능의 활성화방안, 2012.3./서정호
- 2012-04 우리나라의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2012.3./김우진·서병호
- 2012-03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할 강화방안, 2012.2./박성욱·박재하
- 2012-02 국내 파생상품시장 공시제도 개선방안, 2012.1./김영도
- 2012-01 외국인 채권 매수·매도의 비대칭적 결정 요인, 2012.1./김영도·임형준
- 2011-26 AT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방향, 2011.12./송민규·연태훈
- 2011-25 연금금 자산운용관련 개선방안, 2011.12./김병덕
- 2011-24 최근 인플레이션의 특징 및 시사점-지속성 및 변동성을 중심으로, 2011.12./이규복·임형석
- 2011-23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분석 : 미국 서브프라임발 위기와의 비교, 2011.12./이명환 외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11./강종만
- 2011-21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와 연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2011.11./김영도
- 2011-20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011.10./김동환
- 2011-19 한국·호주의 은행산업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1.10./서병호
- 2011-18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 2011.9./박성욱·장 민
- 2011-17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011.8./이지언·연태훈·김영도·송민규·임형준
- 2011-16 최근 장기금리 하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1.8./김정한·장 민·이규복
- 2011-15 외환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 2011.7./김정한·박성욱
- 2011-14 비우량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2011.7./이지언·임형준
- 2011-13 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기간부예금) 평가 및 개선방안, 2011.7./임형석

- 2011-12 비은행 금융회사 금리 결정요인 분석 : 저축은행 및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2011.7./이규복·이순호
- 2011-11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 제언, 2011.7./이재연
- 2011-10 국내은행의 외환부문 리스크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 2011.7./박성욱·송민규
- 2011-0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 2011.7./이시연
- 2011-08 해외주식투자 활성화 방안, 2011.6./이지연 외
- 2011-07 증권대차시장의 발전방안, 2011.6./김영도
- 2011-06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환업무 관련 효율화 방안, 2011.5./노형식 외
- 2011-05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1.4./김병연·서정호
- 2011-04 금융상품판매시장의 발전방안, 2011.4./강종만
- 2011-03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개선방향 : 비교공시를 중심으로, 2011.4./송민규
- 2011-02 고품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2011.3./김병덕 외
- 2011-01 금융안정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방향, 2011.3./박성욱 외
- 2010-16 국내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서정호
- 2010-15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2010.11./정찬우
- 2010-14 우리나라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10.10./이재연
- 2010-13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 : 우리나라 은행을 중심으로, 2010.10./노형식
- 2010-12 최근 달러 캐리거래의 동향과 시사점, 2010.9./김정환·이윤석
- 2010-11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2010.8./장민·이규복
- 2010-10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2010.8./장민·이규복·임형석
- 2010-09 최근 랩어카운트의 현황과 대응방안, 2010.8./이지연·임형준
- 2010-08 시스템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2010.8./손상호·이상재
- 2010-07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의 영향과 정책대응, 2010.6./김정환·임형준·이지연
- 2010-06 볼커룰(Volcker Rule)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0.5./서병호
- 2010-05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010.5./김동환·정찬우·이재연
- 2010-04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2010.4./장민·이규복
- 2010-03 외화표시 국내채권 CDS시장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2010.4./서병호·이윤석
- 2010-02 예대율 규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0.4./이지연·김영도
- 2010-01 녹색금융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0.2./구정환

■ KIF Working Paper

- 22-25 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시사점: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22.12./남재현
- 22-24 사적 채무조정업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022.12./한재준
- 22-23 거시 충격이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2022.12./석병훈·유혜미
- 22-22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2022.12./조두연
- 22-21 탈중앙화금융(DeFi)의 현황과 법적 정비 방향, 2022.11./고동원
- 22-20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22.11./안수현·정대·이지은·노은영·강영기
- 22-19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유출입 및 환율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 2022.10./심명규·조수진

- 22-18 주택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주택시장 정책효과 분석, 2022,9./허석균
- 22-17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금융의 역할 재조정, 2022,9./이기영·심명화
- 22-16 NFT 및 메타버스 (Metaverse) 동향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2022,8./강형구
- 22-15 Outside Directors' Insider Trading Around Board Meetings, 2022,7./Seil Kim·Seungjoon Oh
- 22-14 Liquidity Spillovers: Evidence from Two-Step Spinoffs, 2022,7./Yakov Amihud·Sahn-Wook Huh·Avanidhar Subrahmanyam
- 22-13 The Effect of ESG-motivated Turnover on Firm Financial Risk, 2022,7./Daewoung Choi·Yong Kyu Gam·Min Jung Kang·Hojong Shin
- 22-12 Corporate-Sovereign Debt Nexus and Externalities, 2022,7./Jun Hee Kwak
- 22-11 Survival of the Un-fittest: A Distribution-to-Distribution Analysis of Pre-Crisis Bank Risk Buildup, 2022,7./Yong-Cheol Kim·Gabjin Oh
- 22-10 Time-varying Arbitrage Efficacy, 2022,7./Jingzhi Chen·Yongcheol Shin·Huamao Wang
- 22-09 Corporate Acquisitions, Profitability, and Markup: Evidence from Europe, 2022,7./David Arnold·Terry S. Moon·Amirhossein Tavakoli
- 22-08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2,4./하준경
- 22-07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Federal Reserve's New Monetary Policy Framework, 2022,4./Andrew T. Levin·Arunima Sinha·Sinem Sonmez
- 22-06 Insurance in a Digital World: Are Cyber Risks Insurable?, 2022,4./Martin Eling
- 22-05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안, 2022,4./박재하·임대웅
- 22-04 최근 산업별 재무안정성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22,4./서은숙·황상현·이상호
- 22-03 The Role of Regional Banks in SME Financing in Japan: Expanding Their Roles for Regional Revitalization, 2022,2./Nobuyoshi Yamori
- 22-02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2022,2./김우철
- 22-01 북한 사금융 실태와 북한 금융제도의 변화, 2022,2./조동호·김은숙·전경주
- 21-19 은행 대손충당금 적시 인식에 따른 영향분석 2021,12./전병욱
- 21-18 주식프리미엄(equity premium)의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2021,12./김현학
- 21-17 정보경제학 관점에서 본 그림자 금융(비은행 금융중개)의 시스템 리스크와 거시건전성 관리 방향, 2021,11./강경훈
- 21-16 Robust and Resilient Finance, 2021,7./John Kay
- 21-15 Bank Regulation in the Age of the Platform Economy, 2021,7./Barry Eichengreen
- 21-14 Innovation Intensity and Asset Prices, 2021,6./Seunghyup Lee
- 21-13 SPACs, 2021,6./Minmo Gahng·Jay R. Ritter·Donghang Zhang
- 21-12 It's Not Who You Know - It's Who Knows You: Employee Social Capital and Firm Performance, 2021,6./DuckKi Cho·Lyungmae Choi·Michael Hertzler·Jessie Jiaxu Wang
- 21-11 Redistribution and the Monetary - Fiscal Policy Mix, 2021,6./Saroj Bhattarai·Jae Won Lee·Choongryul Yang
- 21-10 Central Bank Policy and the Concentration of Risk: Empirical Estimates, 2021,6./Nuno Coimbra·Daisoon Kim·Hélène Rey
- 21-09 Optimal Bailouts in Banking and Sovereign Crises, 2021,6./Sewon Hur·César Sosa-Padilla·Zeynep Yom

- 21-08 Digitalization of Finance in Korea, 2021.5./Taiki Lee·Yong Tae Kim·Thorsten Beck·Yung Chul Park
- 21-07 Cryptocurrency Regulation and Enforcement in the U.S. and Europe, 2021.3./Demelza Hays·Andrei Kirilenko
- 21-06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적립방식 연금 활용 방안, 2021.2./박종상
- 21-05 Digital Technology and Financial Innovation: A Literature Survey, 2021.2./Thorsten Beck
- 21-04 Market Structure, Regulation and the Fintech Revolution, 2021.2./Antonio Fatas
- 21-03 Inner Workings of Collateral-based Stablecoins and Its Implications, 2021.2./Gongpil Choi
- 21-02 Cross-border Collateral Constraints in Asia and Its Implications, 2021.2./Gongpil Choi
- 21-01 Toward a Central Bank Collateral Framework for ABMI, 2021.2./Gongpil Choi
- 20-04 금융기관의 조직 내 상시적 혁신을 위한 인사조직 개선방안, 2020.12./김경민·김승현
- 20-03 국내의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한국, 선진국(G7), 신흥시장국(BRICs)에 대한 비교연구, 2020.12./장원창
- 20-02 Finance and Technology: What is changing and what is not, 2020.9./Stephen G. Cecchetti·Kermit L. Schoenholtz
- 20-01 남북 경제협력 재추진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 2020.1./이윤석·남오연
- 19-09 국내의 사회적 책임투자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9.12./여은정
- 19-08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넛지(nudge) 도입 방안, 2019.12./박나영
- 19-07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차별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 2019.12./한재준
- 19-06 국내 자본시장에서 PEF의 역할과 발전방향, 2019.11./이준서
- 19-05 Network effects of multiple banking relationships on systemic risks, 2019.11./서상원
- 19-04 CROSS-BORDER ASSET PLEDGEABILITY FOR ENHANCED FINANCIAL STABILITY, 2019.9./최공필
- 19-03 저소득층 가계부채 실태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 2019.5./박창균
- 19-02 부동산의 공유자산화를 통한 임대안정방안, 2019.1./이상영·최명섭
- 19-01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2019.1./오세경
- 18-05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과 한국경제의 파라미터 추정에 관한 연구, 2018.12./남덕우·이정환
- 18-04 도시재생사업의 부동산 개발금융 활용방안, 2018.11./고성수·김준형·강원진
- 18-03 Reconnecting the Dots : Expanding Asian Financial Network for the PSD2, 2018.8./최공필
- 18-02 균형거시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주택가격 및 임차료 변동 요인 분석, 2018.5./박춘성·송 준·홍재화
- 18-01 집합투자기구 투자증대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연구, 2018.1./조형태
- 17-09 News Media Sentiment and Asset Prices: Text-mining approach, 2017.12./표동진·김정호
- 17-08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기업 부도예측 연구, 2017.12./오세경·최정원·장재원
- 17-07 대학생 대출 특성 및 제도 개선방안, 2017.12./이준서
- 17-06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7.12./최공필
- 17-05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in Small-value Cross-border Remittances and its Implication, 2017.4./최공필
- 17-04 Economic Fluctuations and Banking Sector: a Unified Analysis with a Financial Sector Augmented DSGE model, 2017.4./심명규·김석기·박춘성

- 17-03 벤처캐피탈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방안, 2017.2./한재준
- 17-02 각국의 채권주심 현황 및 시사점, 2017.1./박창균
- 17-01 내생적 통화공급과 통화정책의 효과, 2017.1./채희울
- 16-02 Fintech as a Catalyst for Financial Inclusion, 2016.10./최공필
- 16-01 저성장기 일본은행의 경험과 시사점, 2016.2./양원근
- 15-17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연구, 2015.11./조영기
- 15-16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2015.11./조준모·우광호
- 15-15 거시건전성 감독과 신용정보, 2015.10./이인호·김영도·송연호·이준서·정재만
- 15-14 시장개방과 외국인증권투자, 2015.9./장원창
- 15-13 금융소비자의 금융투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심리 변인과 외재적 정보의 인지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2015.9./변상호
- 15-12 세계금융위기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시각 및 금융감독규제의 변화, 2015.8./조윤제
- 15-11 한국투자자 관점의 국제분산투자, 2015.8./정재만
- 15-10 한국자본시장의 차익거래 특성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 증권거래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2015.8./박종원·이인호
- 15-09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금융정책과 벤처금융산업, 2015.8./이인호
- 15-08 Real-financial Linkages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Financial Social Accounting Approach, 2015.6./표학갈·송새람
- 15-07 유형별 자본이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2015.6./김홍기
- 15-06 증가단일가에 기초한 파생상품 정산과 시세조종 유인에 대한 고찰, 2015.6./윤선중
- 15-05 금융발전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2015.5./한재명
- 15-04 원-위안화 직거래시대의 한-중 금융협력방안, 2015.4./서봉교·정영록
- 15-03 스톡옵션 행사시 내부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가?, 2015.4./김선호
- 15-0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소득계층별 가계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차이 분석, 2015.3./임병인
- 15-01 On the Determinants of Surges and Stops in Foreign Loa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2015.1./백승관·송치영
- 14-16 A Regional Repo Market Initiative for Global Financial Stability, 2014.12./최공필
- 14-15 융합적 사회적경제와 SHC : 사회적경제와 주류경제의 융합, 2014.10./김대영·심상달·장원석
- 14-14 Competitive Search Equilibrium in the Credit Market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Limited Commitment, 2014.10./송재은
- 14-13 연기금투자물 액티브 주식형펀드의 성과와 그 결정요인 : 공모 액티브 주식형펀드와의 비교 분석, 2014.9./이성효
- 14-12 기업내부의 사적이득 편취유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4.9./위경우·이재현·정현재
- 14-11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유형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7./이장우·노희진
- 14-10 자본이득 과세에 관한 연구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중심으로, 2014.6./김정식
- 14-09 고령화가 가계부문 금융행태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패널을 이용한 분석, 2014.6./김경수·유경원
- 14-08 은행 예대금리의 결정요인 : 시장금리의 은행금리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2014.6./김상환·노형식
- 14-07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가 유럽 및 신흥국 국제시장에 미친 영향과 한국 국제에 대한 외국인투자, 2014.6./김동순
- 14-06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 연구, 2014.5./이건범·김우진
- 14-05 펀드 이용료와 쌍방의부성, 2014.5./민세진·이경원

- 14-04 신 글로벌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정책대응 방향, 2014.4./오정근
- 14-03 금융권간 융합과 경쟁에 대한 연구, 2014.4./강경훈·여은정
- 14-02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2014.3./채희울
- 14-01 Growing Global Needs for ACU-Dominated Reserve Assets, 2014.3./최공필
- 13-15 IT기술발전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전략, 2013.12./김준호
- 13-14 공통화폐단위(CCU) 활용을 통한 역내화폐의 국제화 전략, 2013.12./최공필·김정한
- 13-13 발행수익률 자료를 이용한 한국이자율 기간구조 추정, 2013.10./김성민·김동석
- 13-12 북한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2013.10./윤덕룡
- 13-11 가계부채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요인 점검, 2013.10./유경원
- 13-10 ELW시장의 투자자 매매패턴 및 성과분석, 2013.9./최영수
- 13-09 The Effect of IFRS on Loan Loss Provision and Loan Origination Pro-cyclicality: Evidence from European Banks, 2013.9./Lee Seok Hwang · Young Jun Kim
- 13-08 Korean Financial Sector in the Post-Crisis Era: Vision and Policy Issues, 2013.8./Suk Heun Yoon
- 13-07 우리나라 신용평가산업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와 정책과제, 2013.8./강경훈·한재준
- 13-06 은행업 분야의 전문규제와 경쟁정책의 조화에 관한 연구, 2013.6./정호열·송석은·안현중
- 13-05 신규공모시장에서 수요예측제도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13.4./신인석·이관영
- 13-04 새로운 금융환경하의 은행의 구조와 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2013.4./송옥렬
- 13-03 부동산 관련 금융위기의 특징과 정책 대응, 2013.4./박원암
- 13-02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역모기지 활용에 관한 연구, 2013.4./함상문·고성수
- 13-01 은행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2013.1./이기영·남재현
- 12-14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소고, 2012.12./이철환
- 12-13 우리나라 금융권 수신의 단기화 요인 및 개선방안, 2012.9./최정규
- 12-12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규율체계 정비 및 방향, 2012.8./정기용
- 12-11 Governance and the Eurozone Crisis: What lessons to East Asian Integration?, 2012.7./Seung-Gwan Baek · Yonghyup Oh
- 12-10 Cross-Border Bond investment,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and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2012.6./Park, Daekeun
- 12-09 보험소비자 가용정보 현황과 과제, 2012.6./지범하·이경주·최현자
- 12-08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효과에 관한 연구 : Chop-shop 접근법을 중심으로, 2012.6./박정수·서정호
- 12-07 한국경제의 통화수요, 통화정책 및 환율결정 : 공적분 VAR모형에 의한 분석, 2012.6./주한광
- 12-06 고령화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2.5./이인호 외
- 12-05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자본흐름의 특징과 전망 : 신흥국관련 자본이동을 중심으로, 2012.5./강삼모
- 12-04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2012.5./문우식
- 12-03 헤지펀드의 도입 및 규제방안, 2012.4./이호진
- 12-02 경제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 2012.3./백용기
- 12-01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in the context of vertical/horizontal integration theory-, 2012.1./Dong-Hwan Kim
- 11-18 외국인 자본유출입 특징과 국내 금융시장의 과급효과, 2011.12./정채식

- 11-17 The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the Cost of Equity Capital: An Empirical Analysis of European Banks, 2011.12./Lee-Seok Hwang·Jeong Ho Suh·Sang-Giun Yim
- 11-16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동태적 연관성, 2011.12./한상섭
- 11-15 내수 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대·중소기업간 위험공유를 중심으로, 2011. 12./하준경 외
- 11-14 리스크를 고려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2011.12./함준호
- 11-13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1.10./전성인
- 11-12 산은 민영화 관련 주요 이슈, 2011.10./윤석현
- 11-11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향, 2011.9./남재현
- 11-10 고령화사회 진입이 금융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1.9./장동구
- 11-09 국내 부동산가격변동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5./고성수
- 11-08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환율, 순수출 및 경제성장간의 상호관계 비교연구 :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2011.5./송유철·원용걸
- 11-07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2011.5./이기영
- 11-06 The Roles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ies for Fiscal Soundness, 2011.5./Man-Woo Lee · Junggun Oh · Dong Heon Kim
- 11-05 이슬람 금융의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1.5./김중관·이승영
- 11-04 On the Determinants of Aggregate Currency Mismatch, 2011.5./Seung-Gwan Baek
- 11-03 원/달러 변동성 증대의 결정요인 분석, 2011.4./성태운
- 11-02 녹색금융의 자본조달론-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의 활성화, 2011.3./전용일 외
- 11-01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2011.3./박성훈
- 10-14 금융위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2010.12./하준경
- 10-13 Constructing an Enhanced Global Financial Safety Net: IMF as a Global Central Bank, 2010.11./Gongpil Choi
- 10-12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금융중심지에 대한 함의, 2010.9./송치영·박해식
- 10-11 The Dollar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risis and Reforms, 2010.9./Jai-won Ryou, Shinji Tokagi
- 10-10 금융그룹에서 법인격과 자기자본규제의 의미, 2010.9./송옥렬
- 10-09 최근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논의, 2010.8./박영석
- 10-08 차이나머니의 해외투자 향방과 시사점, 2010.7./김경엽
- 10-07 국내 투자은행(IB)의 리스크관리 방안 연구, 2010.7./김진호
- 10-06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2010.7./이종욱
- 10-05 자본이동의 반전과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 2010.7./김정식
- 10-04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수체계의 미대칭성과 투자쏠림현상, 2010.6./강경훈 외
- 10-03 재정정책의 변화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패널분석, 2010.6./박완규 외
- 10-02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정책과제, 2010.5./채희율
- 10-01 가격경직성과 금융시장마찰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 효과 분석, 2010.4./정용승

■ 기타보고서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 중장기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2022.7./손상호
- 국내은행의 플랫폼 전략: 현황과 전망, 2022.7./구본성·이대기
- Prospects of the Global Economy after Covid-19, 2022.4./Thorsten Beck Yung·Chul Park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조망과 한국경제에의 시사점, 2022.3./KIF
- 금융혁신 8대 과제 :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 2022.2./손상호
- Fostering Fintech for Financial Transformation -The case of South Korea, 2021.8./Thorsten Beck, Yung Chul Park
-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2021.2./김자봉
-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2020.12./정운영·박원주·황삼진
- 2020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2./KIF
- 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019.7./김자봉·노형식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2019.4./안테스 외
- 증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 2019.1./함유근·이종석
- 2019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19.1./KIF
- 생산자동화 및 기술발전이 금융산업 고용 및 임금구조에 미친 영향 : 미국의 사례(1980년과 2007년 비교), 2018.12./심명규·양희승
- ICO의 이해, 2018.12./홍기훈
-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2018.2./임 진·김영도·박중상·박춘성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2017.1./신용상·이상영·이수욱·이태리 외
-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2016.12./홍기훈
-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상황, 2016.11./김석기
- 2013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 보고서, 2013.11./장민 외
- KIF금융상황지수, 2011.6./박성욱 외

[종간]

□ KIF 금융분석보고서

- 2022-05 은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비대칭적 반응 분석과 시사점, 2022.3./구본성·김우진·이대기
- 2022-04 M&A 전후 지주은행 영업행태 변화 연구 - 201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 2022.3./구정환·오테록·이규복
- 2022-03 은행의 대출 증가와 주가수익률 : 우리나라 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2.2./김영도
- 2022-02 수출 급변동 조기예측모형 :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2022.1./송민기
- 2022-01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현황과 개선과제, 2022.1./김재현·이석호
- 2021-07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2021.12./김정환
- 2021-06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대출과 기업성장, 2021.12./이병윤·권홍진
- 2021-05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 2021.12./구정환·이규복
- 2021-04 신용평가산업 규제 역사와 경쟁정책 개선방안, 2021.12./임형준

- 2021-03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2021.11./이지언
- 2021-02 기업의 법적 형태가 부도위험과 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2021.10./김석기
- 2021-01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2021.7./장 민·박성욱
- 2020-01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 과다채무자를 중심으로 -, 2020.2./임진
- 2019-03 국내은행의 핵심예금 결정요인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2019.12./김우진·이대기
- 2019-02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민사적 금전체제(과징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9./김자봉
- 2019-01 기업부채 리스크와 은행대출 건전성 -Merton 모델을 중심으로-, 2019.6./이지언
- 2018-01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2018.9./김자봉·박양수·조태근
- 2016-04 우리나라 은행의 시장경쟁도 평가 및 정책점 시사점, 2016.8./서정호
- 2016-03 국내 서민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016.8./구정환·이규복·김석기
- 2016-02 금융자본계열과 산업자본계열 보험사간 경영성과 비교·분석, 2016.3./이석호
- 2016-01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시사점 :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2016.2./김우진·이순호
- 2015-01 국내은행의 점포수 변화와 변동요인 분석, 2015.10./이윤석

□ KIF 정책분석보고서

- 2022-02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2022.2./김영도
- 2022-01 금융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2022.2./서정호
- 2021-05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연구, 2021.12./신용상
- 2021-0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국경간 거래, 2021.12./이명활
- 2021-03 빅테크의 대출기능 현황, 영향과 정책과제, 2021.12./이병윤·서정호
- 2021-0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2021.12./김남중·김현태·박혜식
- 2021-01 코로나19가 소득분위별 채감물가상승률에 미친 영향, 2021.7./박성욱·장민
- 2016-03 서민금융의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2016.8./손상호
- 2016-02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이해-워크아웃과 법정관리-, 2016.5./김동환·이순호·구정환·김석기
- 2016-01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6.5./김자봉
- 2015-07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국제논의와 국내도입 시 고려요인 분석, 2015.11./임형석·이재연
- 2015-06 국내 기술금융의 과제와 개선방안, 2015.9./손상호
- 2015-05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책대응방향, 2015.9./박종규
- 2015-04 국내 「금융회사 정리체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2015.9./임형석·고영호
- 2015-03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탈동조화 현상과 정책시사점, 2015.4./신용상
- 2015-0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도 효과 분석, 2015.3./구정환·김영도·이시연
- 2015-01 협동조합은행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상업은행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2./김자봉
- 2014-05 인구고령화 및 금리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9./강종만
- 2014-04 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쟁점과 대안, 2014.9./박종규
- 2014-03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2014.8./임형석
- 2014-02 은행의 금융중개기능과 금융통제(Financial Restraint)에 관한 연구, 2014.7./김동환

- 2014-01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방향 및 과제, 2014.6./손상호·김영도
- 2013-06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2013.12./손상호
- 2013-05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방안, 2013.11./이재연·이시연
- 2013-04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 과제, 2013.6./KIF
- 2013-03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2013.6./이석호
- 2013-02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2013.4./KIF
- 2013-01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3./손상호·이재연
- 2011-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2011.9./이시연·구본성
- 2011-02 금융그룹의 통합리스크 관리, 2011.7./이명활
- 2011-01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리스크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11.1./구정환·이시연
- 2010-01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2010.10./이석호·구정환

□ KIF 금융조사리포트

- 2021-02 새로운 지급수단 출현과 결제방식의 변화가 국제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2021.3./김정환·이윤석
- 2021-01 국내의 ESG 투자 현황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 2021.3./이시연
- 2020-01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영향과 시사점 :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10./김자봉·이대기
- 2019-01 베트남의 금융개혁과 금융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2019.12./이병윤·박혜식
- 2016-01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에 대한 해외 연구 및 사례, 2016.11./김정환

□ KIF 금융리포트

-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2018.3./이수진
- 국내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 방향성에 관한 연구 -KPI 개선을 중심으로-, 2018.2./김우진·이대기
-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2017.12./김자봉·김정환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 2017.7./지만수·이윤석
-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2017.3./이순호·이재연
-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동향과 과제 -바람직한 금융규제 체계의 모색-, 2017.1./김동환
-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6.10./서병호·이수진·이윤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변화와 국내 증권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5.12./강중만
-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및 과제 -지분형 부동산증권화 및 NPL시장 등을 중심으로, 2015.9./김동환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평가와 시사점, 2015.6./김우진
- 2014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구조변화 : 중간금융브리프(국제금융이슈컬렉션) 2014, 2015.01./KIF
-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 :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12./안형익·박혜식
- 한국금융산업발전사(1990~2010년을 중심으로), 2014.12./KIF
- 한국 통화정책의 유효성 연구, 2014.6./강명현·이혜란
- 금융지주회사의 CEO 리스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2013.11./김동원·노형식
- 금융기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3.8./이순호
- 중소기업금융의 발전과제, 2013.6./손상호·김동환
-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단기지표금리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2013.3./김영도
- 가계부채 백서, 2013.3./KIF

※ 홈페이지(www.kif.re.kr)를 참조하시면, 한국금융연구원의 모든 발간물을 보다 상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 복 (李圭 馥)

■ 약력

- 서강대학교 학사
- 듀크대학교 대학원 박사(경제학)
-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위원

■ 주요 논저

- 「비은행금융산업의 2030비전과 발전과제: 코로나 위기 이후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이재연, 구정환과 공저), KIF연구총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7.
- 「지속가능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기반마련 연구」(구정환과 공저), KIF금융분석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1.11
- 「연대보증면제가 보증사교율에 미치는 영향」(구정환, 임형준과 공저), 한국경제의 분석 27-3, 한국금융연구원, 2021.12
- 「M&A 전후 저축은행 영업행태 변화 연구 - 2016~2017년 사례를 중심으로」(구정환, 오태록과 공저), KIF금융분석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22.3

KIF 분석보고서 2023-02

가계의 자산보유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시작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2023년 1월 19일 인 쇄
2023년 1월 27일 발 행

발 행 인 박 종 규
발 행 처 한 국 금 용 연 구 원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6·7·8층
전화: 02-3705-6300 FAX: 02-3705-6309
<http://www.kif.re.kr> ; web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 한국금융연구원 2023

※ 보고서의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